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349호
2023년 5월호

www.snuaa.org news@snuaa.org

정재훈(공대 64) 동문 가정은 한미우호와 한인이민의 성공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오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국무부 대연회장에서 열린 오찬에는 블링큰 장관이 정재훈(오른쪽 상단 원내) 박사 가정을 한미우호와 한인이민의 성공사례로 소개해 깊은 감동을 줬다. 정 동문의 맏딸 줄리 정은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국무부 공식 유튜브 캡처 · 관련기사=4면〉

평의원 회의 개막 … 서울 축하사절단 역대 최대

유홍림 총장 등 발전기금 관계자 총출동
총동창회에서도 회장 비롯 임원 5명 참석

6월9일~10일 라스베이거스 웨스트케이트 호텔에서 열리는 제3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 등 서울에서 대거 축하사절단이 참석한다.

유 총장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김기현 발전기금 부이사장(원자핵 공학과 교수), 이준환 발전기금 상임이사(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승아 국제협력 본부장(경영대학원 교수) 등 주요 보직 교수들이 동행한다.

박근경 발전기금 실장, 박현정 발전기금 팀장, 허윤상 발전기금 팀장까지 참석하니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서울대 발전기금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은 기금 조성을 통해 단과대학과 대학원, 부속 기관의 교육 및 연구활동은 물론 장학 사업, 학내 인프라 확충 등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미주에도 재단이 설립된 이래 미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 모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돈이 1700만 달러에 육박한다.

유 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주 동문들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자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총동창회 측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손님들이 평의원 회의를 찾는다. 김종섭(문리대 66) 회장을 비롯해 김인규(문리대 69) 수석 부회장, 이경형(문리대 66) 상임부회장과 이인범(공대 67) 동문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미주 동창회는 제17대 노명호 회장 취임 이후 모교는 물론 총동창회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공동 사업을 벌이는 등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총동창회는 오는 6월28일 월트디즈니홀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8일 오렌지카운티 시거스트롬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미주 동창회의 신년 음악회도 후원한다.

한국 지휘자 금난새 동문이 오렌지카운티를 대표하는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공연으로 미주 동창회와 총동창회, 주류 문화계가 손을 잡고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 2회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
11대 1 경쟁률 뚫고 최종 10명 선정

6월9일 평의원 회의서 시상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한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서 10명의 장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는 모두 110명이 지원해 11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엄격한 심사끝에 선발된 10명의 스칼러에게는 1인당 1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오는 6월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제3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시상한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박사는 평의원 회의에서 장학생 10명을 줌으로 연결해 동문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SNUAA 네트워크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돼 제 1회 수상자들과 함께 서울대 동창회 가족이 된다.

올해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는 명문대 학생들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하버드대 7명을 비롯해 예일대 6명, 스탠퍼드대 3명, 컬럼비아대 3명, 노스웨스턴대 7명이 지원했으며 UC계열 대학에선 버클리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앨버트 강(캘리포니아 · 예일대)
- ▶ 김나은(메릴랜드 · 하버드)
- ▶ 김민서(일리노이 · 노스웨스턴)
- ▶ 김서현(일리노이 · 하버드)
- ▶ 한승희(일리노이 · MIT)
- ▶ 김성정(버지니아 · 예일대0
- ▶ 유나오(캘리포니아 · 듀크)
- ▶ 이우석(뉴욕 · 컬럼비아)
- ▶ 하나 이(캘리포니아 · 스탠퍼드)
- ▶ 앨리스 이(버지니아 · 노스웨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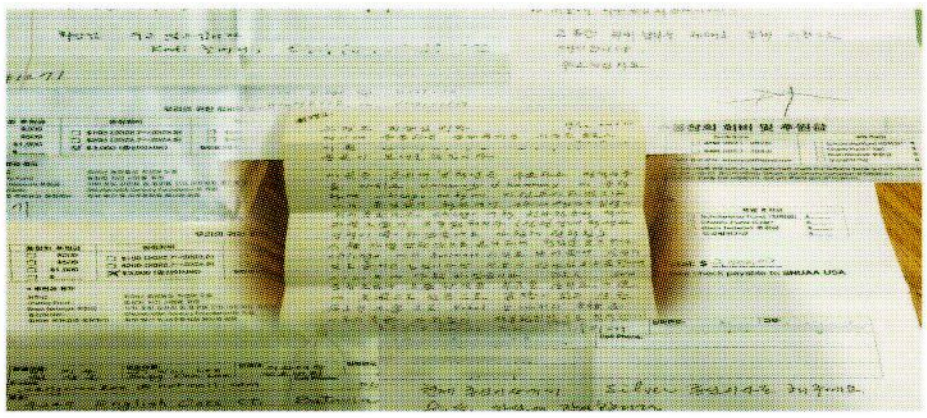
〈관련기사=14~15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기금 101만1971달러 … 종신이사 73명 늘어



노명호 회장이 제16대 미주 동창회장에 취임하고 며칠 뒤 동창회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1만달러를 기부한 성낙호(치대 63) 동문을 시작으로 동문들의 종신이사 가입 행렬이 이어지면서 재정자립기금(Century Foundation Fund)이 4월30일 현재 101만1971달러를 기록했다.

노 회장 임기 중 3000달러 이상의 회비를 낸 종신이사는 무려 73명이 늘었다. 이중 1만달러 이상의 회비를 낸 골드이사가 19명, 5000달러 이상을 낸 실버이사가 8명이나 된다. 종신이사에 가입하겠다며 체크와 함께 보내온 편지들에는 가슴뭉클한 사연들도 많았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기리기 위해 동문의 미망인들이 종신이사 회비를 보내오거나 손녀딸의 명문대 입학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왼쪽 사진은 직접 동창회 사무실을 찾아와 1만달러 종신이사비를 낸 성낙호 동문. 오른쪽 사진은 동문들이 종신이사 회비와 함께 보내온 편지들.

서울대 본부 기획처
발전공로상 · 사회봉사상 추천 의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은 7월중 공고

서울대 본부측이 미주 동창회에 발전공로상과 사회봉사상 후보 추천을 의뢰해 왔다.

유흥림 신임 총장은 지난 3월 본 회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으로 '발전공로상'과 '사회봉사상' 및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은 미주 동문들도 수상할 수 있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본부 기획처 대외협력팀은 본 회보에 이메일을 보내와 발전공로상과 사회봉사상 후보 적격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 제의했다.

발전공로상은 올해 16회째로 모교의 발전(발전기금 조성 등)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진다. 인원은 매년 5명이내.

사회봉사상은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동문들의 귀감이 되고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고인도 시상 대상이다. 올해 13회째를 맞는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은 7월 중 공고 예정이다.

지난해 미주 동문 수상자는 박민식 전 UCLA교수 · 박금옥 동문이 발전공로상을, 김필주 박사가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감은 발전공로상은 6월 6일까지, 사회봉사상은 13일까지. 인적사항과 공적사항 등 관련 서류를 미주 동창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818-321-2214
이메일: leeheidi2214@gmail.com

알 림

서울대 발전공로상 및 사회봉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제16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6월 9일까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교원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과 사회의 존경을 받는 교직원과 동문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제13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교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온 모교 교직원, 교직원 단체 또는 동문 개인 및 단체를 6월 16일까지 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인 추천 가능)

모교 기획처 대외협력팀으로 후보 추천서, 추천사유, 공적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화 : 02-880-9712
메 일 : wingim@snu.ac.kr
주 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3층 기획처 대외협력팀
공고문 : 홈페이지(www.snu.ac.kr) >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 일반공지

휴스턴 동창회
총 9명에 장학금
박흥우, 허진범 동문 신규 기부

휴스턴 동창회가 지난 5월9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열고 총 9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문들이 수여식 후 장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 서울대 동창회 휴스턴 지회(회장 김정환, 이하 휴스턴 서울대동창회)가 제33회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지난 5월 9일 휴스턴 서울가든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장학사업은 지속했으나 수여식은 하지 않았다. 올해 4년만에 수여식이 대면으로 열렸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금액을 1500 달러로 올린 장학금이 총 9명의 장학생에게 지급되었다.

김정환(공대80) 동창회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효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는 축사를 전했고 이호성(공대72) 동창회 이사장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 질문하는 자세로 하나라도 더 지식을 습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수여식에 앞서 유인숙(약대76) 장학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박흥우, 허진범 동문의 신규 기부 구좌가 늘어 2명의 장학생을 더 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충용(공대90), 장수정(사대91), 김한석(공대79) 등 휴스턴으로 새로 이주해온 동문들을 소개하고 지난 5월 발생한 댈러스 쇼핑몰 총기난사 사건에서 숨진 30대 한인 부부와 3세 아들 등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도 가졌다.

제 32차 평의원 회의 평의원 및 일반 동문 참가자 명단

오는 6월9~10일 라스베이거스 웨스트게이트 호텔에서 열리는 제32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는 동창회 산하 27개 지부 회장과 일반 동문·가족 등 모두 114명이 참가한다.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윤수(문리대 48) 동문도 9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참가한다. 다음은 평의원 참가자들 명단이다.

남가주 지부 CA

번호	이름	단과대	동창회/직책
1	이채진	문리대 55	총동창회 전부회장
2	강미자 Mrs. 이채진	음대 62	지부 음대 이사
3	박종수	수의대 58	16대 미주동창회
4	박윤수	문리대 48	미주동창회 초대 회
5	오흥조	치대 56	미주동창회 7대 회
6	김은종	상대 59	11대 미주동창회장
7	노명호	공대 61	16대 미주동창회장
8	김병연	공대 64	미주동창회 17대 집행부 고문
9	최진석	법대 64	남가주 총동창회 전 법대 회장
10	한효동	공대 58	남가주 지부 종신이사 (Golf 동호회 회장)
11	류수안	공대 53	남가주 총동창회 공대 이사
12	홍성선	약대 72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종신이사
13	백옥자	음대 71	17대 미주동차오히 차기 총무국장
14	백정현	음대 66	미주동창회 17대 광고국장
15	박혜옥	간호대 69	남가주총동창회 상임이사/17대 간사
16	임춘택	상대 68	남가주 차기 회장
17	이호진	간호대 74	미주동창회 16대 총무국장
18	강호석	상대 81	미주동창회 16대 사무국장
19	김인종	농대 74	미주동창회 17대 행사국장
20	성주경	상대 68	미주동창회 17대 고문
21	박자경	생과대 60	남가주 총동창회 생과대 이사
22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총동창회 농대 이사
23	제영혜	생과대 71	종신이사
24	민일기	약대 69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평의원
25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종신이사
26	김경무	공대 69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27	최정희	간호대	남가주 지부
28	김상찬	문리대 65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종신이사
29	신복례	문리대 83	미주동창회 17대 편집고문
30	이명선	상대 58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종신이사
31	한흥택	공대 60	남가주 지부 종신이사
32	주준희	문리대 72	미주동창회 17대 편집국장
33	안혜정	생과대 77	미주동창회 17대 섭외국장
34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지부 평의원
35	차종환	사대 54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종신이사
36	김승배	음대 82	미주동창회 17대 광고부국장
37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종신이사
38	제갈소망	음대 02	남가주 지부
39	최용준	수의대 81	남가주 지부 상임이사
40	김종하	문리대 85	남가주 지부

CA (SF)북가주 지부

번호	이름	단과대	동창회
43	홍경삼	문리대 61	북가주 지부 평의원
44	최경선	농대 65	북가주 지부 회장
45	임승쾌	문리대 66	북가주 지부 평의원

NY 뉴욕지부

46	신응남	농대 70	미주동창회 15대 회장
47	이희만	간호대 70	뉴욕 지부 평의원
48	조상근	법대 69	뉴욕 지부 평의원
49	성기로	약대 57	뉴욕 지부 평의원
50	금영천	약대 72	뉴욕 지부 평의원
51	박상원	음대 69	뉴욕 지부 평의원
52	이전구	농대 60	미주동창회 9대 회장
53	허유선	생과대 83	뉴욕 지부 평의원

MI 미시간 지부

54	장병진	공대 61	미시간 지부 종신이사
55	이광진	공대 81	미시칸 지부 회장

IL 시카고 지부

56	황치용	문리대 65	시카고 지부 회장
57	김동희	공대 66	시카고 지부 평의원

PA 필라델피아 지부

58	손재옥	가정대 77	미주동창회 13대 회장
59	이만택	의대 52	필라델피아 지부 기금 이사장 /종신

MA 뉴잉글랜드 지부

60	윤상래	수의대 62	14대 미주동창회 회장
61	김용구	공대 66	뉴잉글랜드 지부 이사(평의원)

MN 미네소타 지부

번호	성함: 한글/영어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동창회 직책
62	용정식	농화학 86	미네소타 지부 회장
63	양한송	농생대 89	미네소타 지부 총무
64	박미연	농생대 박사 94	미네소타 지부 평의원
65	황효숙	사대 65	미네소타 지부 종신이사

VA 워싱턴 DC 지부

66	박평일	농대 69	워싱턴 지부 종신이사
67	정세근	자연 82	워싱턴 지부 회장
68	남욱현	상대 84	워싱턴 지부 상임 부회장
69	이상강	의대 70	미주동창회 17대 회장
70	김경숙 Mrs. 이상강	가정대 70	미주동창회 17대 사무총장
71	임소연	음대 91	하트랜드 지부 회장
72	이주현	미대 92	하트랜드 지부 총무

평의원 회의 강연자 소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김동희 (공대 66)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파괴력이 큰 것은 아마도 '반도체 전쟁'일 것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제품, 인공지능, 무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그 사이에 낀 메모리칩 강국인 한국도 생존전략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동희 동문은 이와 관련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반도체 산업 역사를 곁들여 흥미롭게 설명할 예정이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의 독무대였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이 반도체 산업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은 엔화 가격을 조정한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무릎 꿇렸다.

1992년 인텔은 일본의 NEC에게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를 빼앗아오고 일본은 그해부터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게 된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처절한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 반도체 시장은 장기 호황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영향력을 급속도로 키우기 시작했고 이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고 한국, 대만, 일본과 '칩(Chip) 4 동맹'을 결성하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 동문은 지난 4월 시카고 은퇴 동문 모임인 '시카고 골든클럽'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연을 했는데 당시 참석했던 많은 동문들이 재미있다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고 이에 황치룡(문리대 66) 시카고 지부장의 추천으로 평의원 회의 강연자에 선정됐다.

김 동문은 공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축 경영회사인 Stonegate Partners의 대표를 지내고 2014년 은퇴했다.

미국의 식품 안전성과 규제

안혜정 (가정대 77)

안혜정 박사는 미국의 식품안전성과 규제에 대해 강연한다. 안 동문은 현재 식품의약국(FDA)에서 식품 안전성 테스트 프로그램 Senior Regulatory Chemist로 일하고 있다.

안 동문은 강연에서 현재의 식품안전과 규제를 만든 역사적인 사건들과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짚어본다.

안 동문은 1981년 가정대 식품영양과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서 식품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리건 주립대, 앨라배마주 오번(AUburn)대, USC 등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한인 젊은 과학자 양성과 한인사회 봉사에도 앞장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부회장과 여성 과학자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로 2021년 한국 국무총리상과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U.S.AmeriCorps President's Gold Volunteer Service Award)을 받았다.

재외동포청과 재미 한인

주준희 (문리대 72)

주준희 박사가 '재외동포청과 재미한인'에 대해 강연한다. 2023년 6월5일부터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미한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재미한인은 재외동포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몇가지 재미한인의 입장에서 제언을 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재외 동포 교류협력과 차세대 동포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던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 흡수한 외교부의 외청이다.

그동안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렬 대통령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이뤄졌다.

재외동포청에는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등과 함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며 총 151명이 일하게 된다.

주 동문은 문리대 외교학과 72학번으로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에모리대학교 교수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서울대 문리대와 국제대학원에서도 강의하였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엘에이 동시통역대학원 원장으로 현역이다.

2023년 5월 제 349호

"정재훈 박사 덕분에 미국이 다시 우주개발 나서"

미 국무장관, 윤석열 대통령 환영오찬서 정 동문 가족 집중 소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재훈(공대 64) 동문 가정이 한미우호와 이민성공 사례로 떠올라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의 방미 이틀째인 4월 27일 환영오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영광"이라고 운을 뗐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이 자리에 모이신 귀빈들과 저는 조금 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명연설을 마치고 참석하신 윤 대통령을 환영한다"며 "지난 70년간 미국과 대한민국은 '같이 갑시다'라는 모토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말단 직원에서 최고경영자로 '아메리칸 드림' 일궈
챌린저호 폭발 규명 … 딸 줄리는 스리랑카 대사
"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버팀목"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 정재훈(공대 64) 박사 가정이 한미우호의 상징으로 소개돼 화제를 모았다. 정 동문의 맏딸 줄리 정(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블링큰 장관은 이어 "한미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정치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계 이민자들을 통해서도 깊이 엮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셀러 '파친코'의 이미진 작가와 요리사 데이비드 장을 간략히 소개한 불링큰 장관은 정 동문 가정의 이민 성공사례를 길게 소개해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이날 환영 오찬에 참석한 미국의 정·관계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블링큰 장관은 이곳 국무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계 외교관이 있다며 줄리 정 대사를 소개했다.

1977년 줄리가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왔을 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5살짜리 소녀에 불과했다고 말한 블링큰 장관은 이어 정 동문 부부의 초창기 이민생활을 가감없이 알렸다.

줄리의 부친은 한 회사의 말단 제도사로 취업했고 어머니는 야간 식당 접시 닦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직장생활을 하며 교회 집사로 봉사했다고 말해 연회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비극적인 폭발과 그 원인을 규명해 해결한 정 동문의 뛰어난 업적에 모아졌다.

블링큰 장관은 정 동문 덕분에 나사(NASA)는 다시 우주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블링큰 장관은 정 동문의 회사는 나사의 달탐사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와 흑인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기 위한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링큰 장관은 정 동문의 큰 딸 줄리는 현재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블링큰 장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줄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엮여져 협력하는 실타래의 한 예가 됐다" 며 "(앞으로) 수많은 기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굳건하게 '같이 갑시다'라는 모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동문은 이민 첫 해 우주 방위산업체인 '테이코 엔지니어링'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청사진 제도사로 취업, 미국생활에 발을 디뎠다.

몇 개월 후 회사 사장의 눈에 띄인 그는 회사측의 배려로 박사학위까지 받아 일약 R&D 담당 수석부사장으로 신분이 수직상승했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폭발하는 대참사가 빚어지자 정 동문은 폭발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오링의 결빙을 방지하는 열보호 장치를 개발, 나사가 중단없이 우주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당시 챌린저호에는 현직 교사가 탑승, 전세계 어린이들과 실시간으로 우주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륙직후 폭발해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었다.

정 동문의 이같은 성과는 LA 타임스가 2개면에 걸쳐 대서특필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정 동문은 회사 대표가 은퇴하자 CEO 자리를 물려받았다. 말단 제도사에서 최고경영자의 반열에 오르는 등 '아메리칸 드림'을 일궜다.

큰 딸 줄리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 재임시절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해 국무부 내에서는 몇 안되는 북핵통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주재영사를 거쳐 국무부에서 일본과장을 지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캄보디아 부대사를 지낸 줄리는 현재 스리랑카 주재 미국대사로 근무하고 잇다.

당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줄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바탕"이라며 "민주주의 가치관과 인권, 그리고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해 박수를 받았다.

정 동문은 행복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에게 수여하는 'Long Beach Family Life'를 받았을 만큼 행복한 가정 생활로도 유명하다. 아내 노정숙씨는 가든그로브 도서관에서 15년간 사서로 봉직했고 둘째 딸 코니 정 김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KCBS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놨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틀'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5월 6일 열린 서울대 미대 남가주 동문전 오프닝 행사에서 출품 작가들과 동문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61학번부터 02학번까지 미대 동문 작품 한 자리

올해 20회 째, 19명 참여
옥션 행사 통해 기금 모금
남가주 총동창회 등 후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회가 주최하는 동문 작품 전시회가 지난 5월6일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S-갤러리에서 개막됐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서울대 미대 동문전은 LA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문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한 최신 회화 및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는 수준 높은 전시회로, 이번에는 위로는 61학번에서부터 아래로는 02학번까지 총 19명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의 참여 작가들은 강영일, 김경애, 김구자, 김영희, 김영태, 박다애, 박영구, 백혜란, 서동현, 신정연, 신혜자, 심영자, 오성주, 이명규, 이상훈, 장원경, 한석란, 현혜명, 황영애(가나다순) 등으로,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을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갖는 특별한 경험들을 캔버스와 조소 작품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하며 매년 정기 동문전에 참여하고 있다.

6월 5일까지 한 달 간 계속된 이번 전시회의 오프닝 리셉션은 5월 6일 열렸으며 20일에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작품 옥션 행사가 진행됐다.

옥션 행사는 모교 발전 기금과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옥션을 통해 작가들은 모교 후배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옥션 참가자들에게는 좋은 미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옥션에서 판매된 작품은 탁상 달력으로 제작돼 동문들의 애장품이 되고 있다.

서울대 미대 제20회 동문전 포스터. 작품 순서는 (맨 왼쪽 칸 위쪽부터) 박영구, 현혜명, 한석란, 이상훈, (둘째 칸 위쪽부터) 신정연, 백혜란, 서동현, (셋째 칸 위쪽부터) 오성주, 김경애, 김영희, 이명규, (넷째 칸 위쪽부터) 신혜자, 김구자, 황영애와 장원경, (맨 오른쪽 칸 위쪽부터) 강영일, 박다애, 심영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만만한 기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수혜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울대 선한 인재 장학생 감사편지에서 발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학업을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후 장학금에 달린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인 만큼 저 역시 책임을 갖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입학했을 때부터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3-05]

성 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약 정 금 액: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미적분 ·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워서 얻다 써요?

학교에서 단련된 뇌는 문제해결과 생존의 원동력

학습은 인간의 본능 …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해

흔히 나이가 들면 뇌가 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뇌는 그러나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 세포의 특성상 훈련이 가능하다. 60~80대가 되어도 바쁘게 살면 뇌를 더 많이 써야해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일 터다. 이인아 교수는 뇌인지과학의 권위자다. 최근 서울대의 공식 유튜브 프로그램인 '샤로잡다' 에 출연해 학습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교수의 강연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이인아
뇌인지과학과

공부와 학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자가 한정적인 영역, 곧 시험 볼 때나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것이라면 후자는 일상의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정보처리를 학습이라고 보면 된다.

학습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이유는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슴이 호랑이를 보고 '저건 무엇이지? 처음보는 동물인데' 하며 대응방식을 모른다면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새롭다는 건 아주 새로울 수도 있지만 내가 알던 게 변할 수도 있다. 가령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짧게 자르고 오면 헷갈린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런 걸 학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태어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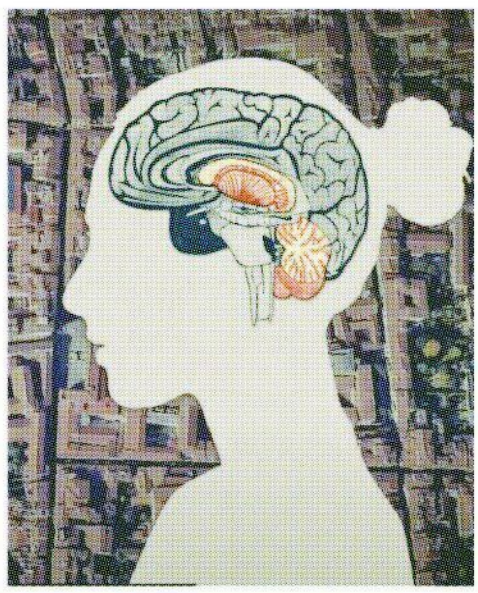
뇌에는 두가지 학습 시스템이 있다. 첫째는 절차적 기억(procedural memory)이다. 예를 들어 손을 씻어야 한다면 일단 수돗물을 틀고 비누질을 하고 … 그런 것들이 다 절차다. 그걸 생각하면서 손을 씻는 사람은 없을 거 같다. 이처럼 '절차적 기억'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다.

절차적 학습의 특징은 처음엔 잘못 하더라도 무한반복하면 결국에는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학습이 이뤄지면 거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절차적 기억은 이처럼 반복하고 습관이 되면 의식적인 노력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두번째,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ry) 시스템은 완전 반대다. 뇌의 해마(hippocampus)나 해마 주변의 영역들이 주로 담당하는데 기억의 내용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술적 기억의 특징은 '원샷 메모'다. 한번 벌어진 일을 세포가 기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자. 자신의 눈 앞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혔다. 경찰이 '본 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하면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사고가 났다'며 서술적으로 증언을 해준다.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인공지능은 수백만 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데 AI는 절차적 학습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보면 된다.

미래엔 '브레인 짐'에서 훈련 받을 수도
뇌 많이 사용하면 '해마' 커져 건강유지



그런데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뇌에는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서술적 시스템은 '이거 새로운 건데' 하고 학습을 하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든 절차적 시스템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술적 학습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했다고 치자. 모든 것이 생소해 긴장한 나머지 해마를 많이 쓰게 된다.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피렌체에 한달 넘게 체류했다고 가정해보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호텔을 가게 되는 등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때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절차적 학습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절차적 학습과 서술적 학습은 균형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무한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절차적 시스템에 의존한다면 한 번의 경험이라도 생생히 기억하는 서술적 학습 시스템은 인공지능에겐 불가능한 것이다.

학교에서 학습은 쓸모가 없다?

흔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미적분? 시장가서 물건사는 데 미적분 써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살아가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한 번 안써봤다. 학교에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가 해야하는 일은 학생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를 탑재해 주는 것이다. 졸업 후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 학교는 교과과정이란 걸 만들어서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며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미적분, 기하학 등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 뇌를 움직여 문제해결 경험을 한 사람은 비슷한 일이 사회에서 벌어져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학교 학습으로 단련된 뇌가 문제해결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뇌를 훈련하면 더 똑똑해 질 수 있을까

뇌도 훈련할 수 있다. 뇌는 나이들어서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 세포의 작동 특성상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쁘게 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사람은 나이들수록 뇌를 더 열심히 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국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런던은 예전에 마차가 다니던 곳이어서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다. 이같은 길을 머릿속에 지도처럼 넣고 있어야 한다.

수천개의 도로와 광장을 전부 익혀야 해 런던의 택시기사 면허시험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해마에 있는 세포는 '장소세포(place cell)'라 불리기도 한다. 이 장소세포로 만들어진 것을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라고 한다. 인지적 지도로 무장한 런던의 택시기사들이야말로 인간 내비게이션이나 다름없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나이가 들면 뇌가 완전히 퇴행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주입시켜 뇌의 퇴행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등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뇌는 정신적인 활동이나 학습을 얼마나 왕성하게, 또 다양한 분야에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나이와는 무관하다.

60~80세가 되면 뇌가 저절로 쇠퇴한다는 얘기는(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다. 뇌체육관(brain gym)에 가서 뇌 피티(PT)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전문가가 '전두엽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해마는 …' 하며 설명을 해 줄 것이다.

전체적으로 훈련이 가능하지만 해마는 수강료를 더 내면 특수훈련도 가능하다는 그런 날이 꼭 올거라고 본다.

미래의 학습은 어떻게 바뀔까

개인 맞춤형으로 바뀔 거 같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학습수단은 책 읽기다. 책은 글씨다. 글씨는 시각적인 자극이다. 어렸을 때 훈련을 많이 하면 거의 절차적 학습의 영역에 들어가서 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뇌 시스템 자체가 시각적이거나 절차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잘 안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남들 보다 한 번 일어난 일을 훨씬 잘 기억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뇌가 이런 쪽으로 발달했으니 이런 쪽으로 학습을 받으면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도 사라질 것이다. 단순한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다. AI와 대화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미래에는 개인차를 인정하는 맞춤형 학습방식이 대세가 될 것 같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이제는 '네 뇌를 잘 알라'는 말로 통용된다. 자기 뇌를 잘 알고 십분 활용하면 굉장히 적응적이고 또 생활의 만족감도 높아지게 된다.

이인아 교수는
▲서울대 심리학
▲유타대 신경과학 박사
▲텍사스 의과대 포스트닥
▲아이오와대 조교수
▲저서: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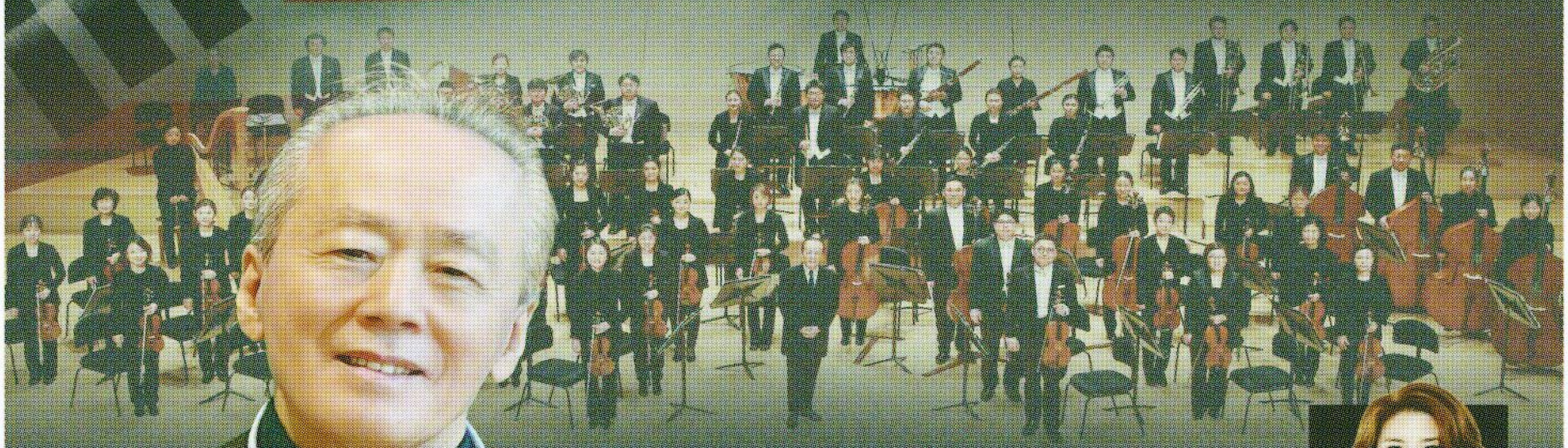
SEONGNAM PHILHARMONIC ORCHESTRA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 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

PEACE CONCERT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Conductor
금난새
Gum Nanse

Mezzo Soprano
백재은
Jae-Eun Paik

Tenor
허영훈
Philipp. Heo

Piano
찰리 올브라이트
Charlie Albright

7:30 p.m. Wednesday, June 28, 2023
The Music Center's Walt Disney Concert Hall

Ticket info. 818.321.2214. snuaa.peaceconcert@gmail.com

Korea-US Alliance Foundation /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Los Angeles /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rmy U.S. Chapter / Korean Veterans Association / R.O.K. Marine Corps V.A
Korean ROTC Association in Southern California /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Hannam Chain Supermarket / Samick Music Corp.

이 시대 가장 매혹적인 '카르멘' 백재은 메조 소프라노

"LA 디즈니홀 공연에 가슴 설레요"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 동문과 환상의 조합'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음대 91·사진) 동문이 오는 6월 28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평화음악회에 출연, 오페라 '카르멘' 중 하이라이트를 선사한다.
'이 시대 가장 매혹적인 카르멘'으로 불리는 백 동문은 이날 금난새(음대 66) 동문이 지휘하는 성남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두 동문은 10년 넘게 함께 공연, '환상의 조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연을 앞두고 백 동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오페라 카르멘은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 당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투표 선정될 만큼 한국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자주 무대에 올려지는 오페라지요.

데뷔 이후로 13개의 각기 다른 프로덕션의 카르멘을 공연한 해도 있었으니, 공연 횟수가 많았던 만큼 기억하시는 관객들도 많은 이유 같습니다. 또 워낙 매력적이고 강렬한 음악으로 가득 찬 오페라여서 여주인공이 관객의 마음에 잘 각인되는 작품이기도 하구요."

- 특히 선호하는 오페라 작품이 있는지요?

"네. '카르멘' 외에도 코믹한 로시니 오페라, 감동적인 베르디 오페라 등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페라는 관객석에서 관람할 때 보다 무대에 서서 부를 때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오는 예술 형식이거든요. 해서 많은 오페라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하신다면 역시 카르멘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메조 소프라노가 비중있는 배역을 맡는 오페라가 있나요?

"많습니다. '삼손과 델리라'의 델리라, '알제리의 이탈리아인'의 이사벨라, '아이다'의 암네리스, '세비야의 이발사'의 로지나 등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메조소프라노를 볼 수 있는 오페라입니다. 팜므파탈이거나 위트가 있는 역할을 맡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가곡과 오페라 중 어느 장르를 더 선호하시는지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같은 질문 같아요. 저는 두 장르 다 너무 사랑합니다. 우위를 따지기가 힘드네요."

- 성악은 기악과 달리 대기만성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악가가 된 특별한 계기, 이유라도 있는지요?

"성악가 모친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성악가의 길로 미끄러지듯(?) 빠져들게 되었어요.

성악은 어려서 시작할 수 있는 기악에 비해 일찍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변성기가 지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신체가 악기이다 보니 활동 기간이 기악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소리가 변해가기도 하거든요. '건강한 신체 관리'가 성악가가 해야 할 일 중 으뜸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처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후들거렸던 것이 기억나네요.

무대 공포증은 대학 진학을 하고도 한참을 갔는데, 대학원 시절 리사이틀을 하면서 한순간에 형광등 켜지듯 '탁'하고 사라지는 순간이 오더라구요.

그때 불렀던 리사이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금난새 동문과 호흡을 맞춰 공연한 경험이 많으신가요? 금 동문은 어떤 분인지 이 기회에 잠깐 소개해주세요.

"금난새 선생님은 제게 큰 스승과도 같으십니다. 선생님과 공연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어가는데, 아무리 익숙한 곡이라도 언제나 새로 공부하시는 자세로 연주하시는 모습에 늘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고쳐야 할 점은 엄하게 지적하시고, 칭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공연하면서 그간 많은 공부를 하고, 녹록지만은 않은 클래식 음악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용기도 얻어가며 금난새 선생님과 지금까지 공연해 오고 있습니다."

- 이곳 LA 동문들도 이번 연주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LA를 자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오고 싶은 곳입니다. 곧 또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백재은 동문은

▲서울음대 성악과
▲뉴욕 매니스 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
▲뉴욕 메트로폴리탄 콩쿠르 입상

- 미국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 디즈니홀에서의 공연은 처음이신지?

"미국에서 주로 공연하던 지역은 동부쪽입니다. 뉴욕을 비롯해 버지니아,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주로 공연을 해 왔습니다. LA에는 친척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방문만 해 왔었는데, 디즈니 홀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기대가 큽니다."

- 백재은 하면 흔히 '카르멘'을 떠올리는 팬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한국에서의 데뷔가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했던 '카르멘'이었습니다.

6월28일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에는 6. 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장병들도 다수 참여한다. 미주 동창회는 이를 위해 참전 용사들과 LA카운티 퇴역 군인들 모임 관계자를 만나 평화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미군의 경우 생존해 있는 분이 많지 않지만 유족 몇몇 분이 공연에 오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사진은 미주 동창회 이호진 총무국장(윗줄 맨 왼쪽)이 6.25참전용사들과 LA카운티 퇴역군임 모임 관계자들을 만나 평화음악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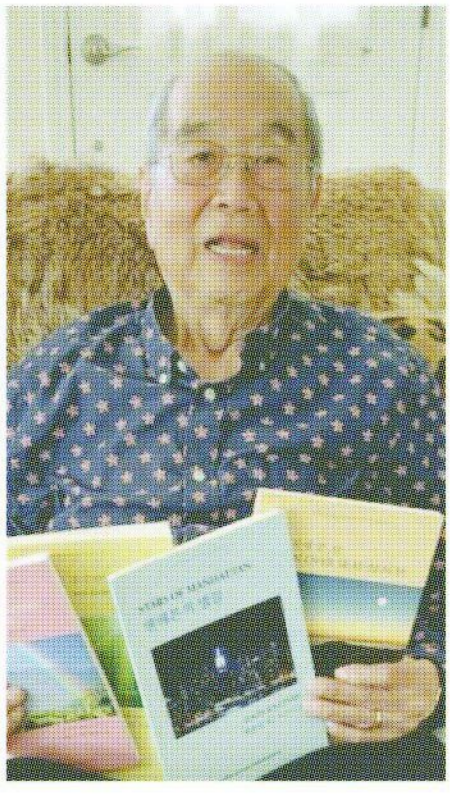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하세요?

구독문의 · 주소변경 · 기사제공 · 광고게재 · 동창회비 납부 · 후원금 등
동창회 관련 모든 문의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이호진(간호대 74) ·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818-321-2214 | leeheidi2214@gmail.com

2023년 5월 제 349호

과학자서 시집 4권 낸 '94세 청년 시인'으로

1991년 5개 도시 회장 모여 동창회 출범
올해도 라스베이거스 평의원 회의 참석



박윤수
문리대 48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

취재는 백옥자(음대 71) 차기 총무의 전화가 계기가 됐다. 박윤수(문리대 48) 초대 미주 동창회 회장이 얼마전 타계한 윤광식 박사의 외동딸 크리스틴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분은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대 예과시절부터 절친이었다. 동창회보에서 윤 박사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는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크리스틴은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아빠와의 연결고리는 LA의 (박)윤수 아저씨와 애틀랜타의 (김)종건 아저씨 밖에 없다"며 두 분을 몹시도 그리워했다.

셋은 모두 경성대 동기생이다. 앞의 두 분은 화학, 박 회장만 물리학 전공이다. 특히 윤 동문과의 인연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주립대에까지 이어져 함께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득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박윤수 회장을 만나보고 싶었다. 고령(94세)이어서 대화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섰다. 백 총무로부터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지금이라도 오세요." 그러면서 집 찾기가 쉽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9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었다.

살고 있는 곳은 실비치의 리저월드(Leisure World). LA에서 바닷가쪽으로 약 15마일 가량 떨어진 은퇴 빌리지다.

LA에는 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왔느냐고 여쭤봤다.

"친구가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어요. 놀러 오라고 하도 성화를 해서 와 봤지요. 비치가 가까워 공기도 좋고, 겨울도 없고…. 아내가 스트로크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박재영 박사. 역시 예과 동기생이다. 마침 앞집에 살고 있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친구가 얼른 그 집을 찜해 놨다. 그러고는 연락을 해온 것.

"즉석에서 'I'll buy it' 말해줬어요." 박 회장 부부는 이 집에서 거의 10년째 살고 있다.

박 회장은 창넘어 친구가 살던 집을 가리키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늙으막에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잠시 깊은 상념에 빠지는 듯 했다.

다음달(6월)이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슬쩍 참석여부를 물어봤다. 작년에는 LA에서 열려 어려움이 없었지만 올해는 장소가 라스베가스여서 '어렵겠다'는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다.

"내가 초대 회장인데 당연히 가야지요."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혹시 라스베가스까지 차편이 있느냐는 질문에 "롱비치 공항이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어요. 비행기 타면 한 시간이면 가요. 호텔도 진즉에 예약해 놨고."

박 회장은 미주 동창회가 발족된 1991년 이후 매년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서울대 교수로 한국에 나가 있을 때도 거르지 않았다. "솔직히 비행기 여행이 무리였지만 '내가 초대 회장인데' 하는 의무감으로 평의원 회의에 꼬박 참석했다"고 털어놨다.

미주 동창회는 어떤 계기로 탄생했을까. "1990년 홈커밍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했는데 예과 동기생인 조완규 총장을 만났어요. 대뜸 '윤수야, 너 돌아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동창회를 만들어봐' 하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제의를 받은 박 회장은 귀국 즉시 동창회 조직에 착수했다. 그의 노력과 집념이 결실을 맺어 1년후인 1991년 11월 창립총회를 열 수 있었다. 남가주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주요 5개 도시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동창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창립 총회에는 한국서 조완규 총장과 최주호 총동창회장 등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미주 동창회의 출범을 축하해줬다.

"회보를 보니 지금은 전국에 28개 지부가 결성돼 있더군요. 노명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사랑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 회장이 태어난 곳은 경북 김천이다. 부모는 그러나 평남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시절 독립운동을 도운 탓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천에 터를 잡게 된 것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의 부모는 일찌기 기독교로 개종한 독실한 장로와 권사였다. "저희 형제(7남매)는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유행가도 부르지 못했고…. 찬송가와 동요가 아는 노래의 전부였습니다. 화투도 못쳤어요." 박정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박 회장의 동생이다.

박 회장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그의 표현을 빌자면 당시 경성대 예과에 들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모험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전국서 내로라하는 수재들과 당당히 겨뤄 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선망의 대상이 됐다.

"경성대 망토를 걸치고 김천여고 교정을 한바퀴 돌곤 했는데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고향 처녀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박현주 여사는 이화여고 출신이다.

경성대가 서울대로 흡수 편입되면서 문리과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한다. 예과 출신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맘대로 택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대학 재학중에도 강원룡 목사가 설립한 전국기독학생회 총무를 맡아 열심을 냈다. 틈만나면 기독교 강좌와 기독학생회 행사에 참가하느라 창경원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가 유학의 길에 오른 것은 1952년. 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기독학생회가 한국의 장학생을 한 명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응시를 했는데 다행히 선발됐다. 앨버타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신시내티에서 고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는 미 공군 연구소에 취업, 반도체를 비롯해 당시 최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해 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와 후배, 과학계를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험장비 등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거의 매년 최소 한 명 쯤은 자신의 연구실로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 연구를 하도록 도왔다.

이 같은 그의 서울대 사랑은 해군 연구소 프로그램 디렉터로 직장을 옮겨와서도 계속됐다. 그의 연구실은 늘 한국인들로 북적였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Korean Ambassador'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박 회장의 커뮤니티 봉사 또한 동창회 못지 않게 다양했다. 반세기가 넘는 한미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아 기금 확보에 힘을 쏟았다.

그 자신 장학금으로 유학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장학재단에 대한 애착과 긍지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겠다.

박윤수 동문은 부인 박현주 여사와의 사이에 딸 셋을 두고 있다. 세 딸은 박 동문의 고희를 기념 한미장학재단에 2만 달러를 출연하기도 했다.

보슬비

늙은이에게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 밤에 보슬비가 내리네.

꽃밭이 그리워 찾아온
보슬비야,
나도 너처럼 그리운 이 찾아가 볼까.

앞마당 연못에도 찾아와
동그라미 그리네.
내 마음에도 동그라미 그려다오.

풀밭에도 찾아왔네.
푸름이 그리웠던가?
더욱 푸르러지는 내 마음.

커뮤니티 봉사로 '노먼 빈센트 필 어워드'
한국선 과학계 기여로 국민훈장 모란장
아흔엔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상

세딸(지니 미미 리사)도 아버지의 고희를 기념, 2만 달러를 장학재단에 출연해 재단내에서 두고 두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인생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워싱턴 지역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2002~2003)에 선임된 것. 일제에 빼앗긴 대한제국 주미 공사관(Old Korean Legation) 건물을 한국정부와 함께 되찾는 캠페인을 펼쳤다. 공사관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으며 3층은 전시공간으로 꾸며져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박윤수 동문과 부인 박현주 여사. 박 동문은 부인을 백합에 비유한 시 '지나간 세월'을 썼다.

이민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념만찬을 열었다. 무려 1500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같이 많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조국에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박 회장의 쉼없는 커뮤니티 봉사는 지난 2014년 '보상'을 받는다.

'노먼 빈센트 필 어워드(Norman Vincent Peale Award)' 수상자가된것.

'적극적 사고(Positive Thinking)'의 저자 필 박사의 이름을 따 제정된 상이다.

과거 수상자 중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엘리자베스 돌 상원의원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뜻밖의 대상을 받은 박 회장은 벤저민 프랭클린을 인용,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정부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박 회장에 수여, 그가 한국 과학계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잊지 않았다.

박 회장의 인생 이모작은 남가주 이주 후 빛을 발한다. 시작에 전념해 벌써 4권의 한영 시집을 냈다.

첫 시집 '실비치에 뜬 달'을 펴낸 그는 '보슬비'와 '맨해튼의 별들' 그리고 '소나기' 등 3편으로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평생 과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시의 세계에 들어오니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고 어지러운 세상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첫 시집에는 '현모양처' 박현주 여사를 백합에 비유한 시 '지나간 세월'이 담겨 있다.

60년을 훌쩍 넘기며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 한 편의 시로 뒤늦게 사랑고백을 해 아내를 울렸다.

박 회장은 실비치 리저월드 문예부 편집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해변문학'이란 창작집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올해 5집이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회원들이 많아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걱정을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현주 여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참 대단한 분입니다." 거의 두시간 가량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 삼모작 얘기는 평의원 회의에서 만나 들어봐야겠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차커(Chaco) 이동호(서양사11)**

'전자계산기 4대로 연주한 '보헤미안 랩소디'

'차커(Chaco)'는 이동호 동문이 가요, 팝, 클래식, 영화OST 등 다양한 음악을 전자계산기로 연주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2016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570여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83만여 구독자를 모았다. 그가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은 미국 유튜브 공식 SNS 계정에 소개되기도 했다. 채널명 '차커'는 작업할 때 카페인 섭취량이 무척 많은데 착안, 홍차의 '차'와 커피의 '커'에서 따왔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계기는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기타나 피아노 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 한국인 유튜버들을 동경해왔다. 전공은 아니지만, 음감이나 음악적 기억력에 자신이 있었고, 많은 음이 무작위로 겹친 불협화음도 척척 알아맞힐 만큼 훈련이 돼 있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예상외로 커져 진지한 작업이 됐다."

-8년 차 유튜버다. 기억에 남는 일화는.

"시작할 땐 미처 몰랐는데, 유튜브라는 매체가 많은 소통과 기회를 가져왔다. 촬영 도중 포기하거나 고심 끝에 고사하긴 했지만, 유명 방송매체에 출연 제의를 받았었다. 영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이자 작가인 노먼 러브렉트가 자신의 블로그에 제 연주 영상을 올리고 지인들과 함께 즐겼던 것도 재미난 경험이었다."

-긴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저력은 뭔가.

"계속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고픈 욕망이다. 작업을 거듭할수록 연주하고 싶은 곡들이 더 많아진다. 제 작업은 전자계산기라는 '우스워 보이는 악기'로 새로운 음향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탐구의식과 도전의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 유튜버도 오래 하기 힘든 직업이다."

-전자계산기 버튼음이 특이하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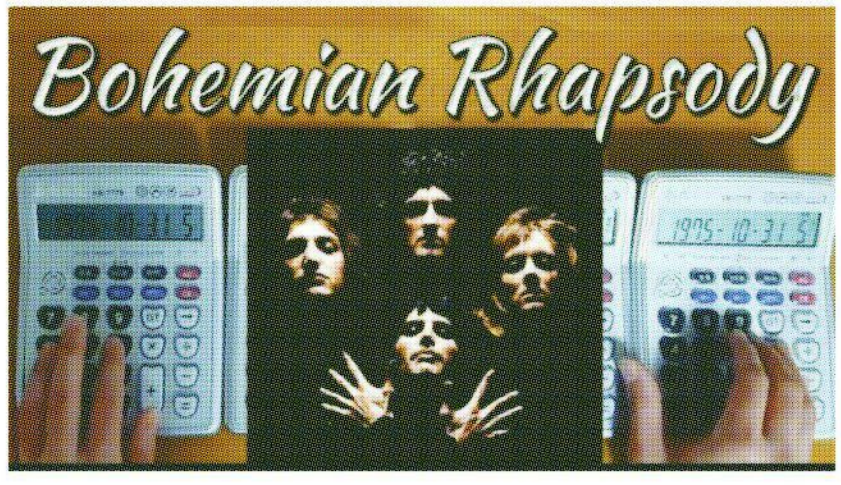
"국내엔 없지만, 해외에선 'Musical Calculator'라고 하는, 연산기능과 더불어 버튼마다 다른 음을 내는 계산기가 꽤 많이 팔린다. 나름 재미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음악들은 계산기로 연주했을 때 제법 특화된 소리가 난다. 고전게임 같은 8비트 느낌의 소리는 향수를 자극하는 맛도 있다."

-전공과 직업의 괴리가 커 보인다.

"원래는 피아노 유튜버였다. 음감엔 자신 있었지만, 연주 실력으론 전공자에 못 미쳐 어정쩡했다. 계산기 연주에 천착한 것은 나만의 장기를 찾기 위한 시도였다. 인문대에 진학했지만, 중고등학생 땐 작곡가가 꿈이었다. 남들은 잘 안 듣는 아방가르드한 음악을 섭렵하면서 오케스트라 곡을 써보기도 했다. 음감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 마냥 시간 낭비는 아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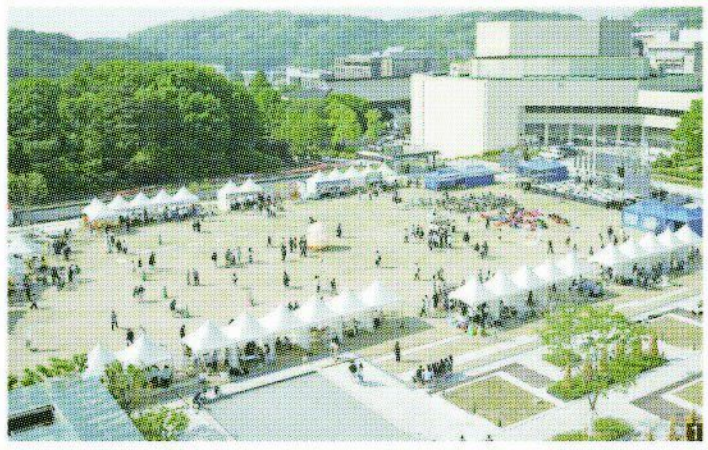
-추천 영상과 채널 홍보 한 말씀.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의 제안으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계산기 4대로 연주한 영상(사진). 변화무쌍한 곡의 특성 때문에 연주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고, 결국 해냈을 땐 모종의 정복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의 일원으로서, 세계인에게 저만의 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3년 5월 제 349호

서울대 축제 가면 바보? 심심할 틈이 없어요



5월 9~11일 관악캠퍼스 잔디광장 등 캠퍼스 일원에서 봄 축제 '리오 더 오리'가 열렸다. 왼쪽 사진은 축제 첫날 잔디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야간 캠핑을 즐기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봄 축제가 열린 관악캠퍼스 잔디광장 전경. 완공된 잔디광장을 사용한 첫 축제다.

모교 봄 축제 '리오, 더 오리' 잔디광장 완공 후 처음 열려

"서울대 축제가 재미없다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서울대 축제는 유독 기대감이 낮다.

'서울대 3대 바보 중 하나는 서울대 축제 가는 사람'이라는 유구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축제 현장에서 만난 재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5월 9~11일 관악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봄 축제 '리오, 더 오리'가 개최됐다.

모교 축제 전담기구인 축제하는 사람들이 주최하고 본회를 비롯해 SKC, 본디, 한국파이롯트, NH농협은행 등 기업들에서 후원했다.

팬데믹 이후 두 번째 대면 봄 축제인 이번 축제는 지난 겨울 완공한 잔디광장에서 관람객을 맞았다. 아트마켓과 푸드마켓, 게임, 버스킹과 공연, 캠핑, 게임 토너먼트 등이 3일간 이어졌다.

'교조인 학은 되지 못했어도 누구보다 축제를 즐기는 오리'라는 모교 축제 마스코트 '리오'가 메인 테마였다.

'일회용기 없는 봄 축제'를 표방해 잔디광장 한쪽에서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관악 게임 토너먼트 결승전에선 팀전으로 인기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지켜봤고, '리오 올림픽' 코너에선 물총 쏘기와 계주 등 참가자들이 잔디광장을 내달리며 땀을 뻘뻘 흘렸다.

'인생 네컷'과 양궁, 미니 축구, 낚시 게임 부스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다.

축제 첫날 밤엔 잔디광장에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돼 캠핑을 하며 공연을 즐겼다. 그밖에도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공연이 지속적으로 열렸다. 걸그룹 '잇지(ITZY)'가 초청 공연을 펼친 폐막제 때 잔디광장 일대는 발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찼다.

재학생 오모씨(화학교육21입)와 박모씨(화학교육21입)는 "잔디밭이 학교 중앙에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만 평지여서 버들골에서 열린 축제보다 공간이 휑해 보이고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시한 분위기가 아니라 재밌게 참여하는 걸 보니 많이 준비한 게 느껴지고 대학교 축제답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학교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서울대 축제가 상대적으로 재미없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겪어보면 다르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코스튬플레이를 하고 축제장에 온 학생들.

모교 학생회는 2003년부터 2003년부터 산하에 축제 전담 기구 '축제하는 사람들(축하사)'을 만들어 축제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50년 전 대학신문엔 '파트너 구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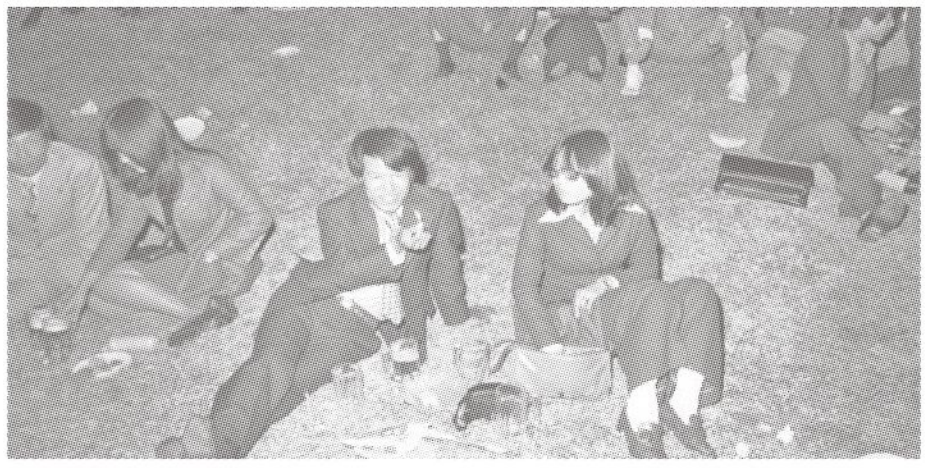
청년문화 상징 책임감 커 독재정권시절 휴교령 빈번

학원사태와 휴교령이 빈번했던 1970년대. 힘든 시절에도 대학생들은 대학문화이자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축제를 공들여 가꿨다. 모교의 경우 1975년 이전까지 곳곳에 흩어진 단과대별로 강한 개성을 지닌 축제들이 성행했다.

문리대 '학림제', 공대 '불암제', 법대 '낙산제', 상대 '홍릉제', 사대 '청량제', 농대 '상록제', 가정대 '아림제', 치대 '저경제', 약대 '함춘제' 등이다.

당시 축제는 학술강연회, 토론회, 체육대회, 음악회, 촌극, 모의국회 등 다양한 학생 행사가 집약된 장이었다. '대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도 분명해 문리대는 축제에도 4·19 정신을 계승하는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축제에 임하는 자세가 마냥 진지할 수만은 없을 터. 마지막날엔 카니발을 열거나 운동장에 모여 이성 파트너와 블루스, 디스코, 포크댄스를 추는 것이 관례였다. 여대생 수백명이 축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1975년 캠퍼스에서 축제를 즐기는 남녀 학생들.

커플들의 앞엔 1960년대 주로 마시던 막걸리가 아닌 생맥주가 놓였다. 인생의 반려자를 축제에서 찾은 학생도 많았다.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후 학도호국단 주관으로 범서울대 축제인 '대학축전'이 열렸다.

학생 주도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7일간 열린 제1회 대학축전은 성대했다. '동창의 날'도 있어 마치 홈커밍데이처럼 총동창회장과 동문들이 참석해 축제에 어울렸다.

아직 관악으로 이전하지 않은 단과대학은 각각의 캠퍼스에서 축제를 열었다.

1970년대에도 외부 연예인이 축제에 초청됐다. 고려대 출신 학생 가수 김상희씨가 모교에 초청되어 '대머리 총각'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언제나 축제 즈음엔 파트너 구하기가 고민이었던 듯하다. 1976년 가을 축제를 앞두고 대학신문에 '파트너가 없는 남녀 학생들을 짝지어 주겠다'는 공고가 실렸다.

접수장소인 학생회관 3층 여학생부실이 신청자로 장사진을 이뤘는데, 성비는 남성이 9 대 1로 압도적이었다'고 기록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 문화가 만연한 것을 반성하며 축제에서도 민속문화의 비중이 커졌다. 1979년 모교 축제 중 열린 봉산탈춤 공연에는 1000명의 관객이 모였다. 당시 출연자 몇 명이 빠져 공연을 취소하려 했지만 뜨거운 성화에 못이겨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 고조될수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 펼쳐야 합니다”

김현철
경영 81
모교 국제대학원장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 체제일 땐 미국이 깃발 들면 많은 나라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엔 의외로 동참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동참하는 나라들의 움직임도 옛날과는 다르고요. 4월 초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때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도 졸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직후 중국에 가 협력을 강조했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5년쯤 지나자 그 실체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영에 치우치기보단 실리를 우선하는 쪽으로요.”

김현철 모교 국제대학원장이 4월 26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총동창회 주최 수요특강 연단에 섰다.

김 원장은 미국 대 소련, 미국 대 일본, 미국 대 중국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우리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에 끼친 막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단일 국가로서 국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신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동맹국들의 탈중국화를 독려하는 미국조차 최근 5년간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외려 늘었습니다. 양국 정부 간 패권 경쟁이 무색하게, 기업 간 협력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보다 공고해지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자국 정부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과 합작해 미국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게 단적인 예죠.

소련과의 냉전 땐, 베를린 장벽이 상징하듯, 양 진영 간 교류·교역이 철저히 가로막혔지만, 지금은 막을 수 없어요. 탈동조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 원장은 냉전 종식 후 30년 동안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전 세계가 얽히고설켜, 진영의 논리로 편을 가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가치나 이데올로기보다 실리와 국익을 우선하는 다극(multipolar) 체제 시대가 됐다는 것.

미국 최근 5년간 대중 교역 늘고
독일·프랑스도 중국에 손 내밀어
탈중국 말고 신시장 개척 나서야

미국과 유럽이 침략 전쟁을 벌인 러시아에 혹독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인도는 이를 기회로 더 저렴하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손잡고 원유 감산을 추진한다. 브라질은 중국과 무역을 강화해 ‘달러 패권’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서서 중국을 등지기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일본마저 하야시 외상을 중국에 급파했죠.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부터 중국 내 체포된 일본인 문제까지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지만, 굳은 표정을 짓더라도 중국과 악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기민하게 실용외교를 펼쳐야 해요. 대만 보십시오. 신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역으로 더 힘차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치고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흰수염고래부터 페루부리고래까지 크기 별로 고래의 종류를 스크린에 띄운 김 원장은 한국은 더 이상 새우에 비유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 7위 통상국가, 수출만 따지면 5위로 올라선다. 고래로 치면 범고래 수준. 엄연히 큰 고래다.

김 원장은 여러 마리가 협동해 더 강한 개체도 사냥하는, 범고래의 특징을 적시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패권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 및 중국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분열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선진국 부유층은 타격이 없겠지만 중위권 및 저개발 국가에 끼친 악영향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매년 1850조원 감소할 것이라 지적했고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현대차를 위시한 우리 기업들이 50조원 투자를 약속했고, 덕분에 중간선거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IRA로 뒤통수를 쳤죠.

자유무역의 가치를 내세워 동맹국의 전열을 다독이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꾀하는 꼴이에요. 이런 판국에 미국에 ‘몰빵’해서 우리 국익이 지켜질까요?”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글로벌 패권 경쟁과 그 대응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청과 영국의 패권 경쟁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켰고,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은 6·25전쟁을 촉발, 남과 북을 갈라놨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은 ‘경제전쟁’으로 변모해, 일본의 산업과 경제에 대못을 박아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드는 한 요인이 됐다. 일본의 침체는 한국엔 기회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일어섰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발전 전략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미일 패권 경쟁에서 일본이 밀리자 독자적 성장 전략을 펼쳤죠.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주저앉히고 자국 내 일본 차 수입 규모를 제한하면서 생긴 빈틈을 공략한 겁니다. 삼성과 현대가 기회를 잘 잡았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패권 경쟁이 고조될수록 특정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분산 경제외교를 해야죠. 유럽·남미·중동도 있지만, 저는 아세안이 가장 유망하다고 봐요. 앞으로 세계 중산층의 절반가량이 탄생할 시장입니다. 물론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 시장도 배제해선 안 되고요.”

나경태 기자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SNUAA 스칼러 영예의 수상자들

앨버트 강
(캘리포니아 · 예일대 화학 · 음악)

화학과 바이올린 복수 전공 … 재생 에너지에 관심

I'm pursuing a BS in Chemistry and a MM in Violin Performance through the Yale School of Music's five-year dual BA/MM program as well as a Certificate in Energy Studies. I've won the National YoungArts Classical Music Division, the Grand Prize of the Music Center's Spotlight Awards, and competed as a finalist in the Stulberg International String Competition.

At Yale, I serve as the concertmaster and first-chair violinist of the Yale Symphony Orchestra. In my junior year, I was inducted into Phi Beta Kappa and was awarded the Joseph Lentilhon Selden Award for excellence in music.

As a chemist, I have conducted inorganic chemistry research in the Hazari Lab since the fall of 2021, working on the synthesis of new transition-metal complexes. Most of my projects have applications in the solar-powered conversion of carbon dioxide to carbon-based fuels, sparking an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 hope to make an impact on the clean energy sector. In the summer of 2023, I'm working on lithium-ion battery research at the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as a Department of Energy intern.

김나은(그레이스)
(메릴랜드 · 하버드대 엔지니어링)

우주공학 전공, 위성통신 회사 창업이 꿈

By working as a Chief Engineer on the Harvard Satellite Team, I gained a love for aerospace, which I cultivated further through experiences at SpaceX, MITRE, Code for America, Kayhan Space, and the Stanford Intelligent Systems Laboratory.

The cube satellite I helped construct with the Harvard Students for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pace (SEDS) was recently selected for launch through the NASA CubeSat Launch Initiative.

For my senior thesis, I worked on designing a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subsystem for the CaliPER cube satellite to calibrate the REASON antenna on NASA Jet Propulsion Lab's (JPL) Europa Clipper spacecraft.

I also have a patent under my name and I have worked as a Data Scientist Community Fellow at Code for America. I hope to one day establish my own startup in satellite communication and control systems that would make broadband networks not only available but affordable to remote and rural communities. After my time at Harvard, I will pursue a Master's in Advanced Computer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ambridge as a Marshall Scholar.

김민서(샐리)
(일리노이. 노스웨스턴대 사회정책)

대학원 진학해 아시아계 민권신장에 기여

I am a rising senior at Northwestern University studying Social Policy with minors in Legal Studies and Psychology. As I prepare for law school matriculation post-grad,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intersection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s.

Currently, I am working as a Policy Analyst Intern at a government relations firm in downtown Chicago, where I drafted policy analyses and briefs for different clients.

Having spent my childhood in Seoul, the Korean part of my identity plays a crucial role in crafting how I navigate through America as an Asian American woman. The unique crosshairs in which people who share similar identities as me motivated me to join KAN-WIN during my gap year.

With my grounded passion came my reaffirmed identity as I began viewing my multiculturalism in a different light, when I was granted the opportunity to study abroad in Montpellier, France last fall semester. Exploring the necessity of cross-cultural comparisons between not only France and the U.S., but also between South Korea, has only allowed me to grow in my heterogenous identity.

김서현(벨라)
(일리노이 · 하버드대 신경과학 · 음악)

음악 · 줄기세포 이용한 정신질환 치료에 관심 커

I am a sophomore at Harvard University pursuing a degree in Neuroscience and a Secondary in Music. At school, I play viola in the Harvard-Radcliffe Orchestra, write for the arts section of the school newspaper, and do research at a lab that investigates neurodegenerative and neurodevelopmental diseases using stem cells.

Currently, my interests lie in neurodegenerative disease, mental illness, and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medicine. This summer, I will be working as a research assistant at the Harvard Korea Institute to explore global health and medical humanities and interning at a neuroscience lab.

After my undergraduate education, I plan on attending medical school and pursuing a career in medicine, hopefully combining many of my interests. In my free time, I like to read, make jewelry, and watch horror movies. I am very grateful and excited to be one of this year's SNUAA scholars!

김성정
(버지니아 · 예일대 정치학)

'예일 대법원' 설립, 캠퍼스 복음전파에도 진력

As the chairman of the Yale Political Union's Federalist Party, a conservative debating society, I chaired the weekly debates on foreign policy, economics, religion, family, and culture.

As the co-founder of the Yale Supreme Court Society, I have helped foster an intellectual and dynamic space on campus for students to seriously and respectfully discuss and debat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Thirdly, as the co-president of my Christian fellowship at Yale, I have helped shepherd a spiritual community with humility and gentleness.

I worked in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s Human Rights Commission, where I drafted legislations, organized briefings and hearings, and attended meetings with advocacy groups and foreign delegations.

'Previously, I worked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Service Institute, where I trained two foreign service officers preparing for diplomatic missions overseas in South Korea;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here I monitored and analyzed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Yale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SNUAA 스칼러 영예의 수상자

자연재해 취약한 곳서 성장, 환경 보존에 관심

유나 오
(캘리포니아 . 듀크대 환경과학)

I am a rising senior at Duke University with an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major and a biology minor. Over my last two spring semesters, I completed two research projects at the Duke Marine Lab, identifying the social impacts and priorities of small-scale fishery organizations and analyzing minke whale behavior using a machine learning pose estimation program (SLEAP AI).

Having grown up in an area constantly affected by the cycle of droughts and wildfires, I aim to make a difference in the realm of environmental relief and recovery. Previously, I have worked in Raleigh' s office of sustainability examining how different departments are integrating equity and resilience into city infrastructure and engagement projects. This summer, I will be working as a water resources intern at Tetra Tech where I hope to provide solutions to help address social and environmental pressures surround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I am both honored and humbled to be a SNUAA scholarship recipient and plan to use the funds to support my education and goals of giving back to my community and those beyond.

수학과 AI를 의학에 접목, 획기적인 첨단기술 개발

이우석
(뉴욕 · 콜럼비아대 응용수학)

I am an applied mathematics major, a computer science minor, and a premed student.

I am always passionate about studying the intersections of mathematics and medicine, and in the future, I am hoping to join other research opportunities that are more geared towards studying AI in medicine.

Seeing the interaction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 understand the empathy, patience, and resilience it takes to be a good physician and try to apply these values to myself. I am also an Advising Fellow at Columbia-Barnard Matriculate, advising and guiding low-incom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Ultimately, I hope to become an empathetic physician who can care for the well-being of every patient. With my background in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I believe I have the capacity to contribute much more than only practicing medicine; I hope to be able to apply my knowledge in mathematics and science to develop tools and technology that will advance the medical field, such as in medical imaging or AI. I would like to thank SNUAA for supporting my goals and offering this scholarship.

혁신과 창업에 큰 관심 … 긍정적 변화 유도

하나 이
(캘리포니아 · 스탠퍼드대 컴퓨터 사이언스)

I am a co-instructor for CS 47: Cross-Platform Mobile Development at Stanford and serve as the Frontend Engineering Team Lead at Carta, where I have been applying my skills in mobile and web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se roles, I currently serve as the Financial Officer and Social Chair for the Stanford Korean Student Association. It is an incredibly rewarding experience for me to be able to share Korean culture with students on campus.

Outside of academia, I have a strong passion for entrepreneurship. Nothing excites me more than the idea of creating something unique and innovative. I have a strong conviction that entrepreneurship is responsible for driving positive change in the world, whether it is through the cre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I hope to drive impact through entrepreneurship.

As an individual, I am still navigating my future and trying to determine the footprint I want to leave on the world. But one thing I can affirm is that I want my passions and values to b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impact I have.

저소득층 헬스케어 진입장벽 낮출 터

앨리스 이
(버지니아 · 노스웨스턴 생물학)

Spending many nights in the hospital with my brother sparked my interest in becoming a pediatric dermatologist. My parents had to navigate the U.S. healthcare system with the frustration of a language barrier alongside their worries for my brother.

My experiences as a low-incom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 having to navigate the U.S. healthcare system made me want to become a doctor who could relieve patients of their ongoing pain and suffering, especially those who can' t afford healthcare in the U.S. As a future physician, I want to be able to advocate for better access to healthcare for people of any socioeconomic status.

I am grateful to have been selected for this scholarship. I will be advancing my education to become a physician who can provide attainable medical services to underserved communities and give back to the Korean community.

인공지능 활용 정신질환 등 건강증진에 힘쓸 터

한승희(올리비아)
(일리노이 · MIT 컴퓨터 사이언스)

I am a sophomore at MIT majoring in Computer Science with concentr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cision Making. My dream is to apply my knowledge and skills in the technical field to solve the biggest problems that our society faces today.

Working as a Research Intern at MIT Media Lab in the past summer helped me take my first step towards my goals of creating an impact. I analyzed human mobility data to derive insights on how social diversity predicts the economic growth in certain geographic regions. These trends were used by the government and small businesse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improve urban planning solutions.

In the future, I hope to support health equity by develop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hat examines lesser-known mental disorders and formulates medications for those suffering from those conditions.

I hope to continue working towards my lifelong quest of improving the lives of others in small yet noticeable measures. In particular, I hope to contribute to accessible education and provide all students an equal opportunity to learn whatever intrigues them.

전날부터 '주룩주룩' 비가 티오프 1시간 전 '뚝'

남가주 총동창회

동문 90여명 몰려 '성황'
53학번 최고령도 어울려

지난 5월4일 LA의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 골프 토너먼트에는 9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우의를 다졌다.

"세상에 …. 비가 그쳤네요."

지난 5월 4일(목) 오후 1시 LA의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경무 · 공대 69) 골프 토너먼트가 열린 이날, 티오프 1시간 전까지 비가 내렸다.

가장 가슴 조렸던 동문은 토너먼트 진행을 주관한 김희경(사대 80) 총무였다.

전날에도 비가 많이 내려 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지 문의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토너먼트 시작 1시간 전 무렵 비가 뚝 그쳤다. 김 총무에겐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1시 정각에 첫 조가 나가자 김 총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 것.

이날 토너먼트 참가 동문은 90여명. 김 총무에 따르면 주중에 대회가 열려 숫자가 줄었다. 주말이면 150명 쯤은 거뜬히 넘었을텐데….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토너먼트의 최대 관심은 과연 누가 '에이지 슈터(age shooter)'가 될 것인가에 모아졌다. 주최 측은 자신의 나이에 다섯을 더한 숫자를 에이저 슈터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안타깝게 이날은 해당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에이지 슈터에 가장 근접한 이는 오영문(수의대 64) 동문. 올해 77세인 그는 82타를 치면 영예의 수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몇 타 차이로 타이틀을 놓쳤다.

남자부 메달리스트는 7오버파를 써낸 고민석(농생대 88) 동문과 이재현(수의대 75) 동문이 공동 수상했다. 여자부에서는 Mrs. 이상호(사대 80)로 15오버파를 기록했다. 2020년 메달리스트인 제영해(생과대 71) 전 남가주 동창회장은 1타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제영해 동문은 그러나 장타상을 받아 여자부 최강자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냈다. 남자부에서는 차기민(공대 85) 동문이 차지했다.

근접상의 주인공은 이상호 동문. 공이 홀컵에서 불과 5cm 지점에 멈췄다. "버디 찬스인데…."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졌다. 이 동문은 아내도 여자부 메달리스트로 등극, 인사받기 바빴다.

뭐니뭐니해도 이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오형원(의대) 동문과 박원준(공대) 동문이었다.

53학번 동기생인 이들은 최고령 선수로 화제와 존경의 대상이 됐다. 구순이 가까운 대선배이지만 후배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며 라운딩을 즐겼다.

대회가 주중에 열린 탓인지 참석자들은 은퇴 동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희경 총무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동문들이 몰린 학번(중간값)은 68~69학번이다. 연령으로는 거의 70대 중반이다.

김 총무는 "대회에 앞서 '같이 치고 싶지 않은' 동문이 있는 경우 알려주면 조 짜는데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기피 동문'을 고발(?)하는 동문은 아무도 없었다.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회 참석자 중 말수회(매달 마지막 수요일 만나는 골프모임) 출신은 무려 32명에 달했다.

한효동(공대 58) 말수회 회장은 대회 참가 회원들에 1인당 5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 선수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묘 간호대 회장과 이호진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한편 11월 4일(토)에는 관악연대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가 치노 힐스에 있는 로스 세라노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다.

▲문의: 310-971-0534
▲이메일: helenkim1@gmail.com

봄 야유회 70여 동문 참석 '즐거운 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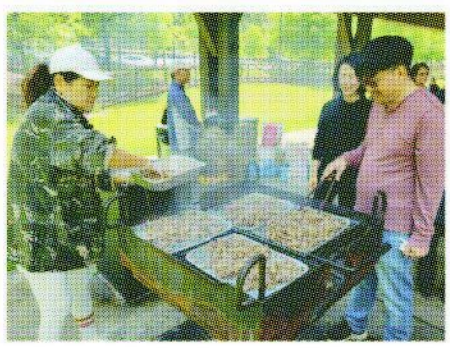
조지아 동창회

조지아의 서울대 동문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 서울대 조지아 동창회(회장 배혜영)가 지난 4월 30일 둘루스 맥대니얼 팜 공원에서 개최한 봄 야유회에서다.

이날 야유회에는 70여 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이 참석,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종호(동양사학과 81 · 애틀랜타 중앙일보 대표)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야유회에서는 김인구 변호사의 상속법 강의와 서울국제여행사 이경훈 동문의 건강 기 체조 강습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혜영(음대 79) 회장은 "이번에도 젊은 동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선후배간 우의도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젊은 동문 참여율 높이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봄 야유회에는 7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식사와 후식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

야유회는 이종호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지아 서울대 동창회는 매년 봄가을 정기야유회와 함께 12월에는 정기 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을 개최해 오고 있다.

▲문의: 678-943-9043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5만불 선뜻 기부

“미주 동창회와도 교류 협력의 물꼬 텄으면…”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 한 재일교포가 5만 달러를 기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인공은 일본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길 동문. 김 회장은 서울대 총동창회 이름으로 5,000 달러를 별도로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한 한국내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재일교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30여 년간 일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한일교류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국에 득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세 자녀에게 울산(학성) 김씨 족보를 나눠줄 정도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크다.

김 회장은 미주 동문들과도 교류의 물꼬를 터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맺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김덕길
문리대 66
일본 서울대 총동창회장

- 최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을 발표하자 앞장서서 기부 의사를 밝히셨는데 어떤 마음에서 내린 결정인가요.

“한국 정부에서 그런 방안을 발표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빨리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 저는 한일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기부도 그 연장선에 있지요.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과 협상을 할 때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본과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동문은 이 대목에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과의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왕이 위원이 주일중국대사를 지냈잖아요. 대사직책을 맡기 전부터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과거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분모가 있어 금방 친하게 됐죠. 일본 경제계에도 우리 둘 사이가 알려지다보니 중국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찾아올 정도였죠.”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전선을 펴자면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할텐 데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선 일본 정부의 사과나 가해 기업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단이 설립되면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김 회장은 이번 뿐아니라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일교포들이 솔선수범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를 치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일교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부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한국에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엔에 해당하는 외화 예금을 한국의 은행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재일교포들이 힘들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가 애로를 겪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이번 기부에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실 지금의 교포사회는 과거와 달라졌어요. 한일관계의 좋고 나쁨이 생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와는 달라졌다니 다행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재일교포들의 신산했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선 1946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사회에서 적지않은 차별과 핍박을 겪지 않으셨나요.

김덕길 회장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생증, 도서관 열람증, 학생증.

“우리 세대는 아무리 똑똑해도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게 한 예죠. 제가 어렸을 때 일본아이들과 싸움을 많이 했는데 당시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사람이어서 더 그랬던 것같아요. 저희 집 입구에는 늘 태극기를 걸어 두었는데 아버지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란 점을 강조하시면서 한국인으로 당당하라고, 일본 아이들에게 공부든 싸움이든 지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금난새 동문과 ‘롤렉스 시계’ 인연
차별 이겨내고 성공한 기업인 ‘우뚝’

-앞서 과거보다 재일교포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차별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야 왜 없겠어요. 한국에서도 출신과 학교를 따지는 분들이 있듯이, 재일교포에게 색안경을 낀 일본 기업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 차별까지 사라지려면 한세대는 더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도 K팝과 드라마·영화 등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재일교포 청년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나요.

“맞습니다. 최근 조카의 딸이 일본 친구들과 한국의 한 대학 어학당에서 6개월 공부하고 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자녀 셋을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일교포라는 강점을 십분 활용해서 한국관련 네트워크를 잘 구축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일본에서 부친께서 물려주신 건설·부동산업을 해 오다가 IT 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1983년 오사카대 출신들을 모아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전자산업연합회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돌아가기도 했죠.”

-현재 운영하고 계신 가네다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태양광, 부동산, 콘텐츠 회사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재일교포로서 차별과 편견을 뚫고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는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신용이 중요합니다. 부친이 고생하시면서쌓아온 신용 덕분에 다행히 큰 어려움없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서 나고 자라셨는데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한국에 친척을 만나러 왔었어요. 일본밖에 모르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무작정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서울대학교에 해외 교포를 위한 입학 전형이 있으니, 한 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당시 한국말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1년간 한국어를 익힌 뒤 들어갈 수 있었죠. 영문과를 택한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한국말이 서툴러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서, 중간에 공대로 전공을 바꿨죠. 공대의 경우 수학공식은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서 수업이 많았으니까요.

-대학시절 인상에 남는 경험은 어떤 게 있나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는데 서울대에 간다고 하니까 반색하시며 롤렉스 시계를 사주셨어요. 그걸 차고 다니다 일주일 만에 소매치기를 당했죠. 당시 롤렉스 시계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 봤는데 제 시계를 찾을 순 없었어요.

체념한 표정으로 터덜터덜 나오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런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지요. 그분이 지휘자 금난새(음대 66) 동문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인연으로 금 동문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 미주 동창회쪽과도 교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연하지요. 사업차 종종 미국을 방문합니다. 비즈니스 뿐 아니라 인적 학술교류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문끼리 협조가 잘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덕길 회장은

1946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1966년 모교 영문과에 입학했다가 곧바로 공학부로 과를 바꿨다.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건설·부동산업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 서 타격을 입자, 1983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고 AIS그룹을 일구었다.

또 그는 재일교포 사회에서 마당발로도 통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재계 및 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한일 경제인간담회, 한일 청년포럼, 한일 IT포럼 등을 이끌며 민간 외교에 앞장서 왔다.

2023년 5월 제 349호

한영신의 헬스푸드(9)

당근 매일 먹고 눈 · 피부 · 장 건강해지기!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50세)을 넘기고 나니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이 많은데 가장 불편한 신체가 눈인 듯싶다.

글 읽을 것이 많은데 글자가 아른거려 읽기 불편하고, 읽고 나면 눈이 침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건조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웬만해서는 영양제를 잘 먹지 않는데 너무 불편해서 눈에 좋다는 루테인이라는 것을 주문했는데, 역시나 몇 알 먹지 못했다. 영양제를 먹고 나면 왠지 속이 불편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잘 챙겨 먹지 못하는 편이다.

그래서 '눈에 좋은 당근 매일 먹기'를 시작했다. 사실 나는 당근, 특히 당근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카레, 야채전, 오징어볶음 등 한정된 종류의 요리에 당근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는 당근 매일 먹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여러가지 요리를 해서 다양하게 먹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매일 당근을 먹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며칠 못 가기 때문에 생 당근을 매일 먹어 보기로 했다.

초장을 맛있게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당근의 향이 덜 느껴지고, 맛있는 초장 맛이 당근과 어우러져 생각보다 당근을 매일 먹기 쉽다. 이렇게 생 당근을 먹다 보니 초장 없이 먹어도 잘 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음식이라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초장 없이 생 당근을 꼭꼭 씹어 먹다 보니 당근 자체의 맛과 향을 세세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당근이 한국 것보다 맛있다고는 생각했었는데 당근을 음미하며 먹다 보니 정말이지 미국 당근은 맛이 있다. 당도는 강하고 당근 특유의 역겨운 향은 약해 초장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요즘은 당근이 과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있어서 당근 매일 먹기가 아주 쉬워졌다. 미국은 고기는 한국에 비해 많이 싼데 채소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한국보다 많이 싼 채소가 당근이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방지는 물론 시력 증진 등에도 좋은 식품이다.

맛있고 값이 싸니 이렇게 경제적인 건강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싶다.

당근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베타카로틴이 많기 때문이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 면역력,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을 주고, 강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노화 방지, 동맥경화 예방, 암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말이지 베타카로틴은 현대에 문제가 되는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양소이다. 당근 한 개를 먹으면 베타카로틴 하루 요구량의 100%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이지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이다.

한달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왜 당근을 먹기 시작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도 습관적으로 당근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생각해보니 눈 때문에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눈 피곤한 것과 아침 눈 건조함이 좀 덜해졌다.

영양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기름에 녹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 당근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다. 맞다. 베타카로틴은 지방에 녹는 지용성 물질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나 자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지식이다.

나도 당근은 꼭 기름에 볶거나 기름 들어간 드레싱을 뿌려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지식에 갇혀 있다 보니 기름으로 요리하는 음식을 준비할 때만 당근을 사용하게 돼 오히려 먹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살아보니 지식에 갇혀 많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좋은 식품이 있으면 흡수율이 낮아지던 높아지던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주 먹으면 그게 더 몸에 좋다.

당근을 잘라서 유리 그릇에 담아 놓고 식탁에 놓으면 눈에 잘 띄어 일어나자마자 당근을 집어먹게 된다. 건조한 입에 적당한 수분을 주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가 위를 먼저 채우니 다음에 들어간 탄수화물의 흡수가 느려져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변비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

영양제는 과잉에 의해 위, 신장, 간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연 식품은 과잉으로 먹기 힘들다. 배가 불러 더 먹을 수 없고, 과식을 했다 싶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 인체가 알아서 과잉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나는 피부가 좋다는 말을 듣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영양학을 전공했지만 영양이 아닌 식품에 집중해서 자연식품을 먹는 것에 노력해서인 것 같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유튜브 방송의 댓글에 달린 글이 생각난다. 영양제 먹으면서 식사에 소홀해서 건강이 망가졌는데, 아깝지만 영양제 다 버리고 자연식품 먹는 것을 노력했더니 건강해졌다고 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당근 먹기를 하신다면 자신의 치아 상태, 소화기능 등 신체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씹기가 힘들면 갈아서 먹고, 생 것이 소화가 어려우면 익혀서 먹고, 지겨우면 쉬었다 먹고 등등.

〈식품영양학 박사〉

'내 삶의 30년을 결정하는 명품 건강법' 긍정적 건강습관 만들기 등 전략 담아

윤영호
서울대 의대교수

서울대병원 윤영호 가정의학과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 '내 삶의 30년을 결정하는 명품 건강법'(사진)을 펴냈다.

이번 신간을 통해서는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잘못된 건강 상식과 몸을 망치는 습관을 지적하고, 전략적으로 건강을 경영하자는 취지다.

본문은 △1장: 시대를 알면 진짜 건강이 보인다 △2장: 당신은 정말로 건강하십니까? △3장: 건강관리는 마음관리와 습관 만들기 △4장: '건강한 나'를 만나는 명품 건강법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의 시대적 흐름과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를 조망하며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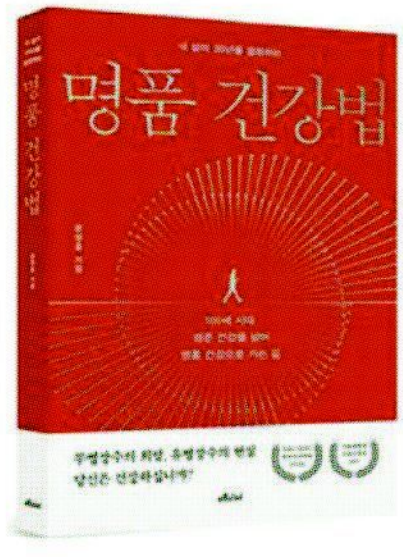
2장은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위기 신호와 그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 주도적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3장에서는 건강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 몸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긍정적 습관 만들기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 4장은 성공적으로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수립 전략을 기술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는 윤교수의 신념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메타 건강(Meta Health), 건강 스캐닝(Health Scanning), 헬싱(Healthing), 건강 자산(Health Assets) 등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점도 인상적이다.

긍정적 사고와 주도적 자세, 그리고 함께하는 삶 등의 건강 경영 전략은 개개인의 건강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호 교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메타 건강, 건강스캐닝, 헬싱과 건강자산으로 명품 건강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한국건강학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건강관리이론에 행동심리학, 경영학, 리더십 전략 등을 융합한 '스마트건강경영전략'을 개발해 임상과 건강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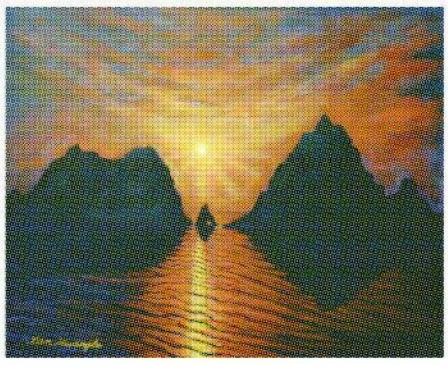
“돌아오라 강치야, 독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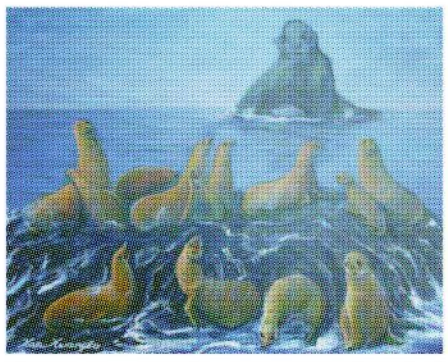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독도 강치’

워싱턴에 거주하는 황보 한(공대 56) 박사가 일제시대 학살되면서 멸종된 독도 강치에 대한 그림을 보내왔다. 우리나라에서 강치로 불리는 바다사자는 독도에 대규모로 군집해 살았기 때문에 독도 강치로 불렸지만 세계 학계에서는 일본바다사자, 일본 강치로 등록돼 있다.

황보 동문은 워싱턴 동문들과 페루를 여행할 당시 태평양에 있는 발리스타스 섬에서 바다사자를 보며 독도에 다시 강치가 서식하게 되면 발리스타스 처럼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전했다. 황보 동문은 한국 최초의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위성 사업을 진두지휘한 한국 우주산업의 개척자이며 은퇴 후에는 한국 예술의 전당과 워싱턴DC MOCA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황보한
공대 56





황보 한 동문이 이제는 사라진 독도 강치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하기 전까지 강치는 독도에 대규모로 군집해 살았으나 불과 10년 만에 1만4000여 마리가 희생됐다.

독도의 주인은 누구일까? 일본일까, 한국일까? 우리의 일상적 판단과 실제는 다르다. 본디 주인은 이 섬에 살던 강치라는 해양포유동물이었다.

-주강현『독도강치 멸종사』

우리나라에서 강치로 불리는 바다사자는 식육목 바다사자아과의 해양포유류로 일본강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강치, 갈라파고스강치 세 아종이 있다. 일본강치는 그중 몸집이 가장 크다. 흑갈색인 수컷의 몸길이는 2.3~2.5m, 체중은 450~560kg에 이른다. 암컷은 훨씬 작으며 새끼와 마찬가지로 황갈색이다. 최대 30년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고 천적은 범고래와 상어다.

일본 각지에 서식하던 강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수렵을 금지했던 에도 시대와 달리, 메이지 시대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보호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독도의 강치에 눈독을 들인 어업가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독도 영토 편입 및 차용 청원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명분은 강치 밀렵 및 남획 예방과 보호였다. 당시 러일전쟁 중이었던 일본은 청원을 계기로 삼아 1905년 2월22일 독도를 비밀리에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강치어렵독점권을 승인했다.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와 통신시설도 무단으로 설치했다.

독도 강치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04~1913년에 약 1만4000여 마리가 희생됐다. 가죽으로 모자챙, 가방, 배낭, 담뱃잎통, 방한 용구 등을 만들었고 피하지방을 끓여 기름을 취했으며 고기는 익혀 건조해 비료로 썼다. 동물원과 서커스에 팔기 위해 생포하기도 했다.

1904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후 가죽 기름으로 1만4000여마리 희생

1900년대 초 연평균 약 1300~2000마리 포획됐던 강치는 1916~1928년 100~300마리로 급감했다. 1933~1941년에는 연간 16~49마리로 멸종 직전의 희귀종이 됐다. 강치잡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됐고, 일본의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강치들은 전쟁 중에 먹이 부족으로 죽었다. 1951년 살아남은 독도의 강치는 50~60마리에 불과했다.

1974년과 1975년에 목격된 개체들을 마지막으로 강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1994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일본강치 절멸을 선언했다. 현재 강치 박제 표본과 영상 등 희귀한 자료 대부분을 일본이 소장하고 있다. 일본은 멸종 한참 전인 1886년에도 시마네현에서 포획한 강치를 박제해 보관했다.

네덜란드 라이덴 자연사박물관에 박제 표본 세 점이 있고, 영국 대영박물관에 모피 한 점과 두개골 네 점이 있다. 국내에는 한 점도 없고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741년 북태평양 코만도르스키예 제도에서 처음 발견된 스텔러바다소는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고 몰려든 사냥꾼들에게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임을 당했다.

1768년, 인간에게 발견된 지 27년 만이었다. 몸길이가 8~9m에 이르는 거대한 동물이지만 더없이 온순했던 스텔러바다소는 저항도 없이 작살을 맞고 조용히 죽어갔다. 독도의 강치도 가죽과 기름 때문에 수십 년 만에 희귀종이 되었고 마지막 서식지 독도에서 최후를 맞았다.

1895년 기록에 따르면, 독도의 강치는 배를 타고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천적이 없는 섬에서 평화롭게 살던 도도나 스텔러바다소처럼 경계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남획으로 희귀종이 된 일제강점기 말의 증언은 다르다. 보초를 서는 커다란 강치가 뱃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 전부 도망을 갔다.

당시 일본의 강치잡이 기록을 보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던 이 온순한 해양동물을 오로지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짜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의 목적도 영구적인 이익 보전이었다.

독도의 강치를 멸종시킨 일본 어부들의 모습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마구 죽이고 강탈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그대로 재현한다. 강치는 멸종된 후에도 평화를 얻지 못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끌려 나온다. 일본은 과거의 독점적 강치잡이를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멸종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강치 동화책을 제작해 아이들에게 날조된 역사를 가르친다.

강치도 표범도 호랑이도 일제강점기에 희귀종이 되었고 끝내 사라져 버렸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일본의 침략이 아니었다면, 강치는 지금도 독도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장노아 화가가 쓴 ‘사라지는 동물들’ 독도 강치에 대한 글을 상당부분 참조했다.

2023년 5월 제 349호

바야흐로 한류의 전성시대

BTS·화장품·K-푸드·K-드라마·우리말까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해

이건일
의대 62

요즘 우리 민족의 역량이 그리 작지만도 않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물론 지나친 자만심은 금물이지만 한국이 르네상스기에 들어갔다고 느끼고 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파도가 된지도 한참 지났다. BTS, 영화, 드라마, 화장품, 음식, 한글, 거기에 외국인들의 귀에는 음악적으로 들린다는 한국어!

나는 옛날에 한국어가 외국인들 귀에는 매우 딱딱하게 들릴 거라고 항상 생각해 왔었다. ㅋ,ㅌ,ㅃ,ㅆ 등의 된소리와 강한 받침소리 때문에 그렇게 들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BTS와 아이돌, 잘 생긴 우리 배우들에 푹 빠진 외국인들 귀에는 '마누리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모든 것이 예쁘고 좋은 법이렸다.

몇년 전 노르웨이 여행 중 한 호텔의 식당 웨이트리스가 우리가 대화하는 걸 듣고는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 사람이세요'하고 물어 깜짝 놀랐었다.

자기는 BTS에 빠져 지금 열심히 일해 돈 모아서 한국에 가보려 한다고 했다. 한류가 이곳 북구의 조그만 마을에까지 퍼져 있구나 하고 만감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클래식 음악에서도 한국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모든 고전음악 경연대회에는 경연자의 4분의 1 이상이 한국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 전에는 밴 클리번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18세의 임윤찬이 1등을 차지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훌륭한 연주자들이 수상을 했었다. 임동혁, 조성진, 양인모, 손열음, 최하영 등등 한국은 셀 수 없이 많은 우승자들을 배출해 냈다.

내 생각에 우리 민족은 유대인을 능가 하는 강인한 민족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은 직장에서 35여년 간을 유대인 사이에서 버텨온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교육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무한하고 강력한 네트워킹 파워에 대항해 버티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미국이민와서 맨땅에 헤딩하듯 하는 수련의 시절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 제일 힘든 일에 가장 먼저 자원했고, 힘들고 피나는 시간도 많았었다.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과정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막대기로 얻어맞아가면서 배운 지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밥벌이하고 애들 교육시켰으니 우리나라 교육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무조건 달달 외우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 획일적인 교육으로 개성을 잃고 창의력을 잘라 버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지금처럼 객관식 위주의 정답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줄은 안다.

그러나 자기들이 받은 교육이 한국인 내가 받은 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꿀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얻어맞아가며 배웠던 그 교육 덕분이었으니 말이다.

옛날에 본 영국영화 한 편이 생각난다. 제목은 'History Boys.' 런던 극장가에서 흥행에 대성공한 연극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려는 어느 지방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이야기다.

그 학교 최고의 학생들로 특별반을 만들어 해당 분야 실력이 최고인 선생님들이 각종 방법으로 이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였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는 어느 나라나 다 힘들고 또 특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한때 내가 살았던 미국 중서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알아서 한다. 각자가 알아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체육, 봉사, 보이스카웃, 예능 등 모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려하고 SAT 스코어를 잘 받으려 노력한다.

그러니 사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잘 해야된다는 말이고, 한국식으로 입학성적만 좋아서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든다.

뉴욕, 보스턴, 커네티컷 등 동부지역에는 한국식 학원이 많이 있다고 한다. 또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유치원 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과거 교육이나 생활이 반드시 나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인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민족이다. 이쯤에서 국뽕 한 사발 들이켜도 되겠다.

글로벌 수퍼스타 BTS(방탄소년단)는 K팝 열풍의 일등공신이다.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지난해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5월 가진 뉴욕필하모닉 데뷔 무대는 사흘 공연이 전석 매진되고 "꿈같은 연주"라는 극찬을 받았다.

클래식 음악도 한국인들의 독무대
한국의 주입식 교육도 나쁘진 않아
유대인 능가, 강인한 민족 '자부심'

K-Food 열풍을 주도하는 불닭볶음면.

미국최대 코첼라 패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선 걸그룹 블랙핑크.

오래전에 나온 한국 영화에 '인터뷰'라는 영화가 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영화 DVD를 구해 보게 됐다. 감독이 프랑스에 유학해 영화를 공부한 분이었다.

하여간 영화는 이정재와 심은하 주연으로 그럭저럭 괜찮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내는 웬일인지 퍽 좋아했다.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생생 작곡 오페라 '삼손과 달릴라(Samson et Dalila)' 중에서 '그대 목소리에 내 가슴은 열고(Mon coeur s'ouvre a ta voix)'를 쓰고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 중의 하나다. 역시 메조 소프라노가 불러야 제맛이 나는 것 같다.

영화의 상당 부분도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 영화와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을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프랑스에서 온 베로니끄에게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을 때 감상을 물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춘향전'이 더 좋았었다고 했다.

'인터뷰'는 다분히 프랑스적인 것은 알겠는데 별로였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느낀 것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수상 후 던진 그 유명한 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자주 듣는 이야기였지만 실제 듣고 보니 참으로 맞는 이야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춘향이가 달릴라를 눌렀다!. 아니 한국인이 유대인을 눌렀나?

한국영화 처음으로 작품상, 감독상 등 오스카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포스터.

아버님의 교훈

오계환
공대 64

우리 아버님은 일정 때 전주고보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평생 초등교육에 몸을 바치셨다. 나는 엄격한 아버님과 온화한 어머님 슬하에서 3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철없던 시절, 나는 어머님께 "아버지는 왜 외삼촌들처럼 서울로 유학하신 후 높은(?) 사람이 되지 않고, 시골에서 국민학교 교장을 하시지?" 하고 여쭤보았다. 어머님 말씀은 "네 아버님은 처남들처럼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학도 하고, 큰일을 하는 거지, 내 처지는 그렇지 못해.

나는 대구사범에서 공부를 하고 내 적성에 맞는 초등교육에 일생을 바칠 거야" 라 말씀하셨다고 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어진 환경에 맞는 목표를 세우며, 최선을 다해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버님 삶의 기본이셨다.

이리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모교 전주북중에 입학, 난생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게 됐다. 중3이 되던 해 고등학교 진학문제가 친구들 사이에 큰 화두가 되었으며 서울로 가겠다는 애들이 꽤 많았다. 나도 서울에 있는 xx(일류) 고등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부모님께 여쭈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신 아버님께서, 뜻밖에도 "너의 형, 누나들이 모두 서울로 유학을 가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둘 밖에 없으니 너는 이리에서 남성고등학교를 다니며 우리와 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고집을 피웠다. 그날부터 나는 집에 감금(?) 되었고 한동안 외부접촉도 금지됐다.

결국 이리에서 남성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3년동안 부모님 슬하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생활의 지혜와 교훈이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이 되었음을 발견했다.

내가 고 1, 아버님이 대한교육연합회 공제조합회장으로 계실 때 미 국무부 초청으로 교육계 시찰을 가셨다. 하루는 여행중인 아버님으로부터 소포가 왔다. 기대에 부풀어 열어보니 영어로 된 몇권의 화학 교과서였다. 이 선물을 보는 순간 아버님의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화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화학은 그러나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나는 더 흥미를 끌었던 물리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때 마침 서울공대에 응용 3과가 신설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1964년 나는 희망대로 응용물리학과 1회로 입학하게 됐다. 전공외에도 전자공학, 응용화학, 핵공학, 제도 등 일반 공학 수업도 두루 수학했으며 이 교육이 훗날 많은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3학년 되던 해 아이오와 주립대(ISU)에서 이론물리학을 전공하신 송희성 교수님이 부임하시어 양자역학을 강의하셨다. 나는 이때 양자역학이 너무 재미있어 "나도 소립자이론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 는 꿈을 꾸었다. 서울공대 대학원 재학중 송희성 교수님 추천으로 ISU 장학금을 받아 1969년 물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3년차 되던 해 나에게 커다란 '사건' 이 발생했다. 고급양자역학을 수강했는데 클라스의 한 친구가 너무 뛰어나 그를 도저히 앞서갈 수가 없었다. 세계최고의 이론물리학자가 되겠다는 나의 꿈은 깨지고, 고민에 빠져 공부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다. 이때 문득 아버님의 교훈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공대를 졸업했지? 공상(?)의 순수이론물리학 보다 공학 개념을 가진 응용물리가 너한테 더 맞지 않아?" 그후 나는 고체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나의 한계와 적성에 맞는 결정을 함으로써 내 생애 가장 심각했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 더욱 더 분투 노력해 1975년 드디어 고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AT&T Bell Lab에 입사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했고 DRAM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 책임자가 되었다. 1987년에는 현대전자로부터 초청받아 반도체 사업본부장을 역임했고 그후 연구소장으로 재직시 우리나라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했다. 그동안 개발/생산한 Memory Device를 가지고 전세계를 누비며 영업본부장으로서 연매출 40억 달러를 기록한 성과도 냈다. 2001년 카이스트에 연구교수로 부임해 국내 경쟁기관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약 3,000억원 규모의 National Nano-Fab Center 국책사업을 수상했고 이룰 카이스트에 접목시켰다.

지금 돌이켜 보면 아버님께서 일깨워 주신 '너의 한계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최선을 다해 이루어라' 란 교훈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고 지금도 이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검소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바이~ 바이~ 미스 아메리칸 파이'

바이(bye)~ 바이(bye)~ 미스 아메리칸 파이.' 가사는 몰라도 간혹 멜로디가 라디오나 TV에서 흘러나오면 흥얼거리게 되는 팝송이다.

원래 타이틀은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록 음악의 거장인 단 매클린이 혼자 작사·작곡·노래까지 불렀다.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미스 아메리칸 파이'는 누구일까.

한마디로 1950년대의 미국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의 전통음식인 애플 파이와 미스 아메리카의 합성어. 동네 아낙네들이 파이를 만들어 돌려 먹던 시절엔 미스 아메리카도 전국민의 한마당 축제로 치러졌던 모양이다.

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났으니 당시 미국은 모든 게 풍요로웠다. 마음 씀씀이도 넉넉했고 건강해 50년대는 '(미스) 아메리칸 파이', 바로 미국의 제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런 '아메리칸 파이'와 왜 헤어진다는 것일까.

60년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정치·사회·문화의 격동기로 내동댕이쳐진다. 매클린은 이 혼란기를 당시 세상을 풍미했던 뮤지션들에 빗대어 장편의 서사시를 엮어냈다.

'(존) 레논은 공산주의에 탐닉하고 / 네명의 딱정벌레들(비틀스)이 활개를 치는 동안 / 세상은 마약으로 가득찼지 / 잘 가세요 미스 아메리칸 파이.'

연일 벌어지는 베트남 반전데모와 폭력, 케네디 형제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극적인 죽음. 60년대는 자유와 행복추구로 상징되는 미국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변혁기였다. 그러니 '아메리칸 파이'는 굿바이 하며 떠날 수 밖에.

그래서인지 노래엔 섬뜩한 구절도 나온다.

'불길이 밤하늘에 솟구치자 / 나는 보았네 / 사탄이 기뻐 날뛰는 모습을 / 음악이 죽은 그날 / 교회의 종은 모두 부서지고 / 내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들 / 성부와 성자와 성령 / 이들은 막차를 타고 떠나 버렸지 / 바이~ 바이~ 미스 아메리칸 파이.'

음악이 죽은 그날…. 그날은 바로 미국이 도덕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리에 마약과 섹스, 그리고 죽음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니 '아메리칸 파이'는 이미 골동품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아메리칸 파이'를 만들게 됐다는 매클린. 비틀스는 마약과 반체제의 중심 인물로, 롤링 스톤스는 젊은이들에게 허무주의를 부추긴 반미국적인 그룹으로 그렸다. 10년이란 세월을 음악으로 풀려다 보니 러닝 타임이 무려 8분 30초나 됐다.

얼마전엔 '팝의 여왕' 마돈나가 이를 절반으로 뚝 잘라 불러 빈축을 샀다.

2000년대의 오늘도 1960년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리메이크를 한 것이다. 성조기를 칭칭 감고 나와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줍잖게 광대 흉내를 냈을 뿐이다.

'아메리칸 파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만찬장에서 불러 화제가 됐던 노래다. 이 노래 덕분에 이웃과 인연을 맺게 된 한 한인 여성의 사연도 관심을 끌었다.

"TV 뉴스에서 봤는데 너희 대통령이 노랠 잘 부르더라. 목소리도 좋고. 마켓에 갔다가 파이를 보니 너희 아이들이 생각나 사갖고 왔다"고 해서 감동을 줬다.

매클린은 지난해 '아메리칸 파이' 50주년을 맞아 성대한 축하공연을 가졌다. 노래가 나온지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메리칸 파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흑과 백의 인종갈등, 연이은 묻지마 총격 사건, 마약과의 전쟁 등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을 고발하는 노래로 들린다. 오늘의 미국은 정말 '아메리칸 파이'와 닮은꼴일까. 〈편집고문〉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재정자립기금 $1,011,971 (as of April 30, 2023)
모교발전기금 $ 107,223 (as of April 30, 2023)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간호68)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남가주 - 오드라 홍(음대70)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혜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조지아 - 김현희(간호59)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 55)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박종수(수의5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기형(상대75)
김대중(의대70)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건호(법대53)
신영찬(의대62)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이호진(간호74)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경배(의대69)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해(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종(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랑(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태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옥(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 (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휘열(의대 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 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최경선(농대65)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 (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오하이오
김용헌(경원66)
이지우(의대68)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헌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현영(수의58)
서중민(공대64)
손재옥(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하와이
故최경윤(사대51)

알래스카
윤재중(농대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810 Wilshire Blvd. #1509,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rie Blvd.,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l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100** (2022.7 - 2023.6) ☐ **$200** (2022.7 - 2024.6) ☐ **$3,000** 이상(종신이사회비)	☐ **$240** (2022.7 - 2023.6) ☐ **$480** (2022.7 - 2024.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Charity Fund (나눔)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춘자(간 69)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석규(치 65)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권봉성(문 64)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무(공 69)
김경수(사 54)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국간(치 64)
김근(농 78)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용채(문 61)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종범(상 64)
김종표(법 58)
김준일(공 62)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윤(법 53)
김태환(문 78)
김향자(약 61)
김희성(음 00)
김학철(의 55)
김희창(공 64)
나두섭(의 66)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류정순(생 6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명근(상 63)
박부강(사 64)
박상원(대 20)
박서규(법 56)
박영옥(사 55)
박용 (문 89)
박용필(문 66)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일우(의 70)
박임하(치 56)
박자경(생 60)
박정모(문 66)
박종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혜옥(간 69)
박호현(의 52)
박홍근(공 64)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승호(치 55)
백옥자(음 71)
백혜란(미 70)
벤자민 홍(문 53)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세진(음 62)
서의원(공 66)
서치원(공 69)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송명국(문 8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영찬(의 62)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승문(공 65)
양승조(음 70)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원용민(공 58)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종(농 74)
유석환(치 55)
유준석(공 52)
육태식(의 61)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건일(의 62)
이기준(법 54)
이덕승(의 54)
이미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모(치 74)
이범식(공 61)
이병성(공 74)
이서희(법 70)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용한(공 64)
이원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익삼(사 58)
이장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묘(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청광(상 61)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충(공 68)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석중(공 50)
임재영(공 59)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장난희(간 74)
장동석(문 66)
장대욱(음 57)
장문섭(공 69)
장소현(미 65)
장원경(미 73)
장윤희(사 54)
장인숙(간 70)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69)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범수(농 71)
전상옥(사 52)
정동주(생 72)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예현(상 63)
정연웅(상 63)
정인환(법 54)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정혜령(간 72)
정황(공 64)
조경애(음 64)
조상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조재국(농 67)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지종근(농 56)
차종환(사 54)
최복철(공 70)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추교훈(농 63)
한귀희(미 68)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정헌(치 55)
한종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효동(공 58)
함승욱(간 73)
현기웅(문 64)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성애(간 60)
홍수웅(의 59)
황건음(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교숙(간 73)
강상진(의 53)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순정(간 69)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5)
권문웅(미 61)
권영국(상 60)
권영대(공 69)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현(미 57)
김광호(의 66)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길(문 62)
김영무(공 75)
김영수(법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영휘(법 80)
김영희(간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욱현(의 59)
김유순(간 64)
김정희(약 56)
김정희(간 69)
김종원(생 58)
김창수(약 64)
김창화(미 65)
김학자(간 59)
김현중(공 63)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민인기(의 67)
민준기(공 59)
박건이(공 60)
박경희(음 57)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재은(미 63)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희(사 54)
변호련(간 63)
서량(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종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웅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정자(간 62)
신춘희(간 56)
안태홍(상 65)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인숙(간 63)
유재섭(공 65)
유택상(문 58)
유호근(문 71)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욱(공 70)
이강홍(상 60)
이명종(공 72)
이문봉(미 76)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일(의 60)
이영재(사 58)
이유성(사 57)
이전구(농 60)
이정은(의 58)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충욱(농 69)
이충호(의 63)
이태봉(의 56)
이태안(의 61)
이해청(약 62)
이형근(수 60)
이흥우(공 50)
전성진(사 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인용(의 64)
정해민(법 55)
정화용(사 61)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득환(의 61)
조종수(공 64)
조태환(상 56)
진봉일(공 50)
차국만(상 56)
차수만(약 71)
천병수(공 70)
최수용(사 55)
최승웅(의 61)
최영태(문 67)
최정웅(시 63)
최한용(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현건섭(공 55)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곽노균(상 51)
김경일(공 58)
김기남(간 67)
김선혁(약 59)
김성곤
김옥동(사 58)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박종건(의 56)
송미자(농 62)
윤영자(미 60)
윤상래(수 62)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금하(문 69)
이은주(음 73)
이의인(공 68)
임영호(공 72)
장용복(공 58)
정선주(간 68)
정정욱(의 60)
조만연(상 58)
故 주창준(의 50)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영중(치 66)
김용재(의 60)
김택수(의 57)
김상순(상 67)
박종우(의 54)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변우진
성욱진(치 87)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이창재(문 51)
이창재(문 56)
주한수(수 62)
황효숙(사 65)

미시간
고선희(문 63)
고광국(공 54)
김국화(공 56)
김우신(의 60)
김재석(의 61)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오동환(의 65)
윤효윤(의 63)
이민우(의 61)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주명순(간 64)
진숙영(문 70)
하계현(공 64)
한영신(생 86)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성철(공 82)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박영훈(공 72)
박종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영(공 64)
안병협(공 58)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윤성희(사 58
위장호(의 67)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이창한(공 56)
이관모(공 55)
임승쾌(문 66)
임정란(음 76)
전병련(공 54)
정지선(상 58)
정춘임(간 67)
정한규(의 63)
조태묵(사 60)
천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남장우(사 56)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영신(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강영국(수 67)
구경회(의 59)
구영미
김길준(의 59)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병윤(문 65)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용주(공 69)
김용환(공 71)
김윤하(공 66)
김정수(문 69)
김정주(문 60)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림근식(문 57)
민영기(공 65)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서상헌(의 65)
소진문(치 58)
손인섭(음 6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안영학(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유기정(간 72)
육길원(사 59)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윤봉수(간 69)
이건정(공 69)
이경미(미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이종일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장윤일(공 60)
전현일(농 62)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정은성(음 04)
조대현(공 57)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최희수(문 67)
한의일(공 62)
한재은(의 59)
홍청일(약 57)
황소냐
황치룡(문 65)

알레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계지영(문 60)
김영자(간)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태웅(의 61)
명인재(자 75)
송용재(의 63)
유덕영(공 57)
이영웅(의 62)

워싱턴DC
강길종(약 69)
고무환(법 57)
곽명수(문 65)
권오근(상 58)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김기봉(공 63)
김내도(공 62)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명철(공 60)
김영란(사 58)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응환(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은희(미 68)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홍우(문 61)
백순(법 58)
백용현(공 64)
서윤석(의 62)
서휘열(의 57)
석균범(문 61)
신경은(문 65)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혜(음 63)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신(인 74)
유영준(의 70)
유영준(의 74)
윤용준(공 63)
유정식(수 60)
유한창(공 69)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서구(문 61)
이선구(문 65)
이성배(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묵(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종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진상(공 57)
이철수(공 61)
이해청(약 62)
임광록(간 72)
정원자(농 62)
조병선(의 65)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워싱턴주
권영희(약 66)
김교선(법 54)
김옥영(문 52)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박호성(의 55)
변종혜(법 58)
안승적(농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명자(간 74)
이승윤(공 90)
이원섭(농 77)
이회백(의 55)
장대흥(공 65)
장석주(의 47)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영서(상 54)
김종구(수 73)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순(농 56)
백낙영(상 61)
서광모(공 65)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윤영돈(법 59)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응(공 60)
정선휘(공 65)
최덕순(간 59)
한성수(의 54)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종영(음 58)
정신호(자 7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송(의 52)
홍성휘(공 56)

테네시
김경덕(공 75)
서갑식 (공 70)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영규(사 66)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황(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곡(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김중권(의 63)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정의철(의 55)
조동건(공 69)
최준희(의 58)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김경희(생 71)
김국간(치 64)
김규화(상 63)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의원(공 66)
서중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옥(생 77)
송성균(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심영석(공 76)
안세현(의 62)
엄종열(미 61)
오진석(치 56)
유영걸(의 70)
윤경숙(문 59)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정덕준(상 63)
전무식(수 61)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목(수 68)
지재원(사 68)
지홍민(수 61)
진병학(의 57)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한수웅(의 55)
한웅오(대 70)

하와이
김달옥(사 45)
김용진(공 50)
박성재(상 57)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이상강(의 70)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김충열(의 56)
박석규(간 59)
유한창(공 69)
이길영(문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천(의 53)

록키마운틴스
이경화(공 56)
이정화(의 61)
전남인(사 72)

애리조나
진명규(공 7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사73) 200
구철희(의78) 125
권기상(대72) 200
권봉성(문 64) 200
김기형(상75) 1,400
김난영(공53) 200
김동석(음64) 200
김병연(공68) 200
김새담(법55) 25
김영(수63) 500
김영봉(사60) 200
김영중(치66) 75
김영희(간54) 50
김은숙(미62) 1,000
김은종(상59) 400
김종섭(문66) 100,000
김종표(법58) 200
나두섭(의66) 200
노명호(공61) 50,000
노진걸(사70) 200
박용필(문66) 1,000
박우선(공57) 500
박원준(공53) 200
박은숙(미62) 200
박종수(수58) 12,000
박혜란(음72) 300
방석훈(농55) 500
성주경(상68) 200
송영두(공59) 200
신동국(수76) 40
신영찬(의62) 200
안혜정(생77) 200
오윤표(음56) 200
오찬수(약57) 200
오흥조(치56) 50
유의영 200
이건일(의62) 200
이명선(상58) 500
이범식(공61) 575
이병준(상55) 3,000
이소희(의61) 75
이장길(치63) 50
이창신(법57) 500
임낙균(약64) 1,000
임석중(공50) 200
장동석(문66) 200
전낙관(시60) 75
전원일(의77) 75
정균희(의65) 10,000
정동주(생72) 100
정신(대92) 1,000
정재훈(공64) 260
정혜령(간72) 100
최용완(공57) 100
최종권(문59) 220
최진석(법64) 25
한성구(상53) 100
한홍택(공60) 200
황현상(의55) 350

뉴욕
강에드워드(사60) 200
강상진(의53) 200
강창홍(의63) 50
고애자(음57) 50
권영국(상60) 200
금영천(약72) 1,000
김명철(공60) 200
김승호(공 71) 1,000
김완주(의54) 75
김은희(간78) 200
김종원(사58) 50
김중권(의63) 200
리준무(음65) 200
문석면(의52) 200
박순영(법56) 75
방준재(의63) 200
서량(의63) 75
선종칠(의57) 100
신응남(농70) 2,400
오용호(의66) 200
이강홍(상60) 200
이재덕(법60) 75
이전구(농60) 700
조남천(사59) 350
조태환(상56) 150
차수만(약71) 300
최수용(상55) 500
최한용(농58) 1,500
최혁(음72) 20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400
홍종만(공64) 200

미네소타
문성인(공88) 50

네바다
정상진(상59) 350

미시간
김희주(의62) 225
남성희(의56) 100
오동환(의65) 400
윤효윤(의56) 200
이성길(의65) 100
이정화(음56) 200
이재승(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500
박영철(농64) 100
박종승(의56) 200
정선주(간68) 100
故 주창준(의50) 300

북가주
부영무(치72) 200
이관모(공55) 200
한만섭(문48) 500
한상봉(수67) 500
황만익(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법59) 75
임춘수(의57) 200

플로리다
김중권(의63) 200
오석일(의64) 200
임필순(의54) 200
정의철(의55) 200
조경호(의66) 200

하트랜드
고 차봉회(의51) 500
이상강(의70) 10,000
최은관 5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박희진(농78) 300

워싱턴
민영기(공65) 75
이명자(간74) 800

텍사스
박영규(사66) 200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워싱턴DC
강길종(약69) 500
고무환(법57) 200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200
김응환(치88) 200
남욱현(경84) 1,000
박은희(미68) 100
박평일(농69) 900
박홍우(문61) 200
변광록(간72) 200
백순(법58) 200
서윤석(의62) 200
석균범(문61) 200
석보환(사68) 200
엄달용(공69) 200
오인환(문63) 175
유영준(의70) 25
이건형(수54) 75
이내원(수58) 275
이선구(문65) 200
이연주(치88) 200
이영묵(공59) 200
정평희(공71) 75
조화유(문61)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400
이영섭(수56) 75
이용락(공48) 1,000
임영신(의56) 100
정의철 250
최희수(문67) 200
한경진(상59) 200

필라델피아
윤경숙(문59) 200
이만택(의52) 400
이성숙(생74) 200
이숭공(의63) 200
정태광(공74) 100
지흥민(수61) 200
진병학(의57) 100
손재옥(생77) 200

하와이
김용진(공 50) 100

조지아
정양수(의60) 25
김용건(문48) 200
송용덕(의 57) 200

테네시
김경덕(공 75) 100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388

커네티컷
김기훈(상56) 200
최창송(의52) 500

애리조나
진명규(공70) 200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광고후원금

뉴욕
김기택(수81) 240
김승호(공71) 1740
박종효(의79) 240
백승원(의73) 240
석창호(의66) 240
신응남(농70) 240
이전구(농60) 480
이창석(의72) 240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640
김양희(음77) 5,200
김원탁(공65) 480
김은종(상59) 600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200
나정자(간70) 4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19,000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5,400
박제환(문75) 500
박찬호(공58) 300
서동영(사60) 480
서치원(공69) 2,500
신동국(수76) 240
안혜정(생77) 800
양수진(간80) 500
이강원(인76) 240
이경희(인83) 240
이기준(법54) 500
이명선(상58) 1,000
이범모(치74) 250
이병준(상55) 1,200
이상대(농80) 240
이승훈(상 74 240
이원택(의65) 2,200
이종묘(간69) 480
이태로(법50) 240
임춘택(상68) 640
장준(인85) 240
정인환(법54) 600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400
차민영(의76) 7,500
최무식(약66) 240
최용준(수81) 400
한태호(인75) 240
한효동(공58) 300
홍훈정(음70) 400

워싱턴DC
남욱현(경84) 9,300
이내원(사58) 1,000
이태영(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배병옥(음 58) 3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조지아
한성수(의54) 200

센디에고
임춘수(의57) 2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최재귀(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오레곤
김영자(간) 100

플로리다
오석일(의64)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장학기금

남가주
강효남(공67) 1,000
권기상(대72) 100
권봉성(문64) 1,000
김경무(공69) 2,000
김병연(공68) 1,000
김상찬(문65) 6,000
김종섭(문66) 10,000
박원준(공53) 300
박정모(문 66 1,000
서치원(공69) 10,000
오흥조(치56) 1,000
이범식(공61) 100
임춘택(상68) 500
전상옥(사52) 100
하기환(공66) 500
한홍택(공60) 50,000
현기웅(문65) 200

하트랜드
이상강(의70) 11,000

뉴욕
선종칠(의57) 100
신응남(농70) 200
이강홍(상60) 500

미시간
고광국(공54) 10,000
이정화(음66) 175

북가주
신규영(공64) 200
최경선(농65) 1,000
한만섭(문48) 500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이용락(공48) 1,300
최혜숙(의53) 100

커네티컷
故유시영(문68) 10,000

워싱턴 DC
오인환(문63) 175
유영준(의74) 100

조지아
이종석(의54)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윤경숙(문59) 100
유영걸(의70) 2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1,100
뉴욕	6,000
뉴잉글랜드	2,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2,000
시카고	2,400
워싱턴	800
조지아	1,600
오레곤	600
플로리다	600
오하이오	600
알라스카	200
남가주	3,000
북가주	2,600
캐롤라이나	400
하와이	300
미네소타	600
하트랜드	550
미시간	500

튀르키예 기부금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남가주
노명호(공61) 2,000
이호진(간74) 100

뉴욕
조상근(법69) 1,000

워싱턴 DC
정평희(공71) 30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이범식(공 61) 100
임낙균(약 64) 3850

뉴욕
차수만(약71)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시카고
강영국(수 6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공 61) 1,000
유의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간74) 100
서진(간56) 3,000
안혜정(생77) 300
한홍택(공60) 1,000
홍종화(약74) 500

북가주
이장우(문72) 100

뉴욕
민준기(공59) 100
조상근(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문48) 200
유성무(상66) 300

오레곤
한영준(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문68) 500

워싱턴
이길송(상57) 100

시카고
김신웅(생59) 300
재환수(사61) 200

휴스턴
진기주(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200

Brain Network

남가주
한홍택(공60) 500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조중행(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워싱턴 DC
서휘열(의57) 300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묵(공), 이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홍선례(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헌(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aa.org |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 (공대 83)T:(203) 909-2387 kimjongb@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헌민(공대 84) T:(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n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 86) T:(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 65)T:(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 72)T:(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지부장 최진민(공대 71)T:(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 (약대 72) T:(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연영재 (공대 74)T:(201)233-7108 jayyeon@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해(상대 83) T:(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267)266-2881 leejt53@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 80) T:(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회장 김건호(공 91) kunhok@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T:(785)764-6985 syounchun@gmail.com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678)943-9043 lhyba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973)610-5857 heedukle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417)277-1636 sinho. 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 98) (310) 689-6366 syeom@vols.utk.edu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sa.net

www.yongsusanla.com

龍水山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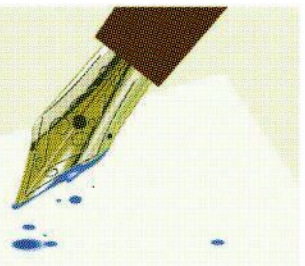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동창회비 납부하시면 이런 혜택들이 ...

- ▲ 매월 동창회보 우송
- ▲ 서울대 병원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 ▲ 한국의 SNU 베리타스 몰 이용(각종 유명 브랜드 할인가격으로 구매)
- ▲ 동창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초청 등.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진심어린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국의 총동창회와 연계해 동문님이 더 많은 베니핏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동창회보에 별첨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창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기관(501c3)으로 등록돼 있어 회비나 후원금 등은 모두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 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웰케어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엔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브랜드 뉴데이 블루쉴드 에트나 헬스넷 스캔 얼라이먼트 클래버케어